

KDB DAEWOO DAILY

2013. 3. 20 (수)

코스피지수 (3/19)	1,978.56P(+10.38P)
코스닥지수 (3/19)	550.01P(+8.92P)
KOSPI200지수 6월물	260.30P(0.00P)
중국상해종합지수 (3/19)	2,257.43P(+17.41P)
NIKKEI225지수 (3/19)	12,468.23P(+247.60P)
원/달러 환율	1,111.60(-3.00)
엔/달러 환율	95.37(+0.44)
국고채 수익률 (3년)	2.60(+0.01)
유가(WTI) (3/19 19:22)	93.87(+0.59)
국내주식형수익증권(3/18)	664,301억원(-1,638억원)
해외주식형수익증권(3/18)	249,439억원(-579억원)
고객예탁금(3/18)	182,502억원(-2,851억원)
신용잔고(3/18)	43,200억원(+683억원)

시황전망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모멘텀의 시작 - 방송, 통신, 정보통신, 원자력 등의
미래창조과학부 관련주에 주목

주간 글로벌 마켓 네비게이션

미국 금융주의 강세 배경에 주목

AI분석

[요약] 모멘텀 전략: 추세의 단순함으로 시장을 이기다

qSketches

연초 이후 헬스케어 섹터 상승에 주목

기업분석

삼성테크윈[매수] - 박원재: 우려보다 커지고 있는 기대

진성티이씨[매수] - 박승현: 아직 끝나지 않은 아메리칸 드림

LG디스플레이[Trading Buy] - 황준호: 이번 상승세가 불안한 이유

유아이지[Not Rated] - 박승현: 태블릿PC가 끌고, 터치패널이 밀고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모멘텀의 시작

방송, 통신, 정보통신, 원자력 등의 미래창조과학부 관련주에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많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되었다(공식 출범은 4월 예상).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이른바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할 부처가 탄생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원자력 안전,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분야 중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가 요구하는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는 방송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가 될 전망이다. 주식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은 IPTV 및 유선방송 등과 관련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콘텐츠 관련주들은 SBS, CJ E&M, 미디어플렉스 등이 있다.

한편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시도가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등의 분야가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엔텔스, 케이앰더블유와 케이아이엔엑스 등이 관련주로 꼽힌다.

기타 원자력은 일본 지진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여전히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은 기술수준이 높고 공기가 짧은데다, 가동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경쟁력이 확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원자력 산업 역시 정책적인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전기술, 일진에너지 등이 있다.

표 1.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업무분야 관련 종목

분야	종목명	매출액(억원)	영업이익(억원)	PER(배)
IPTV/유선방송	KT	251,135	15,356	7.8
	SK브로드밴드	26,969	1,313	17.4
	LG유플러스	115,542	5,815	11.9
콘텐츠 제작	SBS	7,614	781	13.8
	CJ E&M	16,039	888	20.2
	미디어플렉스	1,030	98	16.4
빅데이터/클라우드	엔텔스	595	90	10.7
	케이앰더블유	3,122	381	8.3
	케이아이엔엑스	312	57	12.8
원자력	한전기술	9,599	1,955	20.7
	비에이치아이	7,050	498	10.0

주: 2013년 예상치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창조경제론 뒷받침 역할 기대

미래선도 과학, 지식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역할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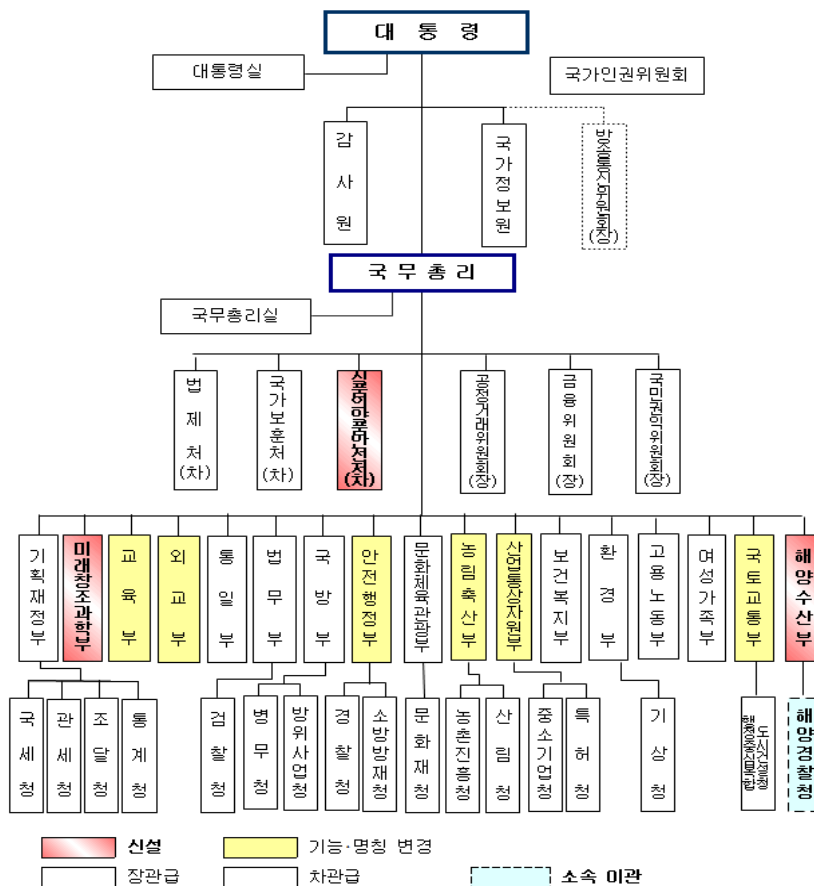
미래창조과학부 탄생. 지식생태계 구축으로 창조경제론을 뒷받침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되었다(공식 출범은 4월 예상).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이른바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할 부처가 탄생하게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립 취지는 1)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 지원, 2)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3)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 해결 지원, 4)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등이다.

구체적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원자력 안전,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18대 정부 조직도



자료: 언론보도,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R&D, 방송, 통신 등의 실무 핵심부서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방송과 통신, R&D 등을 담당할 전망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정부의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해서 신설되는 부처이다.

우선 지식경제부의 기능 중에서는 산업경제실(산업기술 정책관), 전략산업기획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업무가 이전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중에는 IPTV와 SO, 위성TV, DMB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의 전체 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단 이 과정에서 각종 허가사항과 법령의 제/개정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 중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와 기타 과학과 관련한 제반 업무가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예산을 배정하고 통신육성정책 예산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원론적인 측면에서 3년 이상의 장기 연구 개발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표 2. 미래창조과학부 예상 편제 및 업무분장

차관	국/실	주요 업무
장관	1차관	미래선도연구실 과학기술조정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 교과부 과학관련 업무 지식경제부 R&D 업무
	2차관	방송통신융합실
		방송통신 진흥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산업 업무
		전파정책국 통신정책국 방송진흥정책국
		행안부 정보화, 보안 업무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업무
	기획조정실	

자료: 언론 보도,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3.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조정

	미래창조부 담당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뉴미디어 사업	케이블방송(SO), 위성방송, DMB 등 유료방송사업 정책수립과 규제권	지상파방송, 채널사업자(PP) 정책수립과 규제권
방송통신융합 정책실	방송통신진흥정책, 융합정책총괄, 방송통신녹색기술전파정책기획, 전파방송관리, 주파수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 비도상업PP 등록승인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 통신경쟁정책, 통신이용제도, 통신자원정책	
이용자보호국		조사총괄기획, 통신시장조사, 방송시장조사, 이용자보호, 시청자권익증진
네트워크 정책국	네트워크기획, 네트워크정보보호, 인터넷정책, 지능통신망	개인정보보호윤리
산하기관	국립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자료: 언론 보도,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높아진 혁신의 필요성

혁신생태계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 커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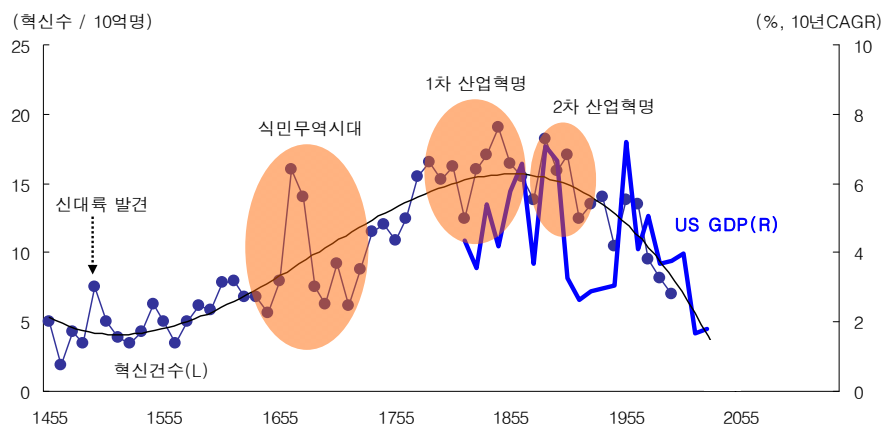
Tyler Cowen이 『The Great Stagnation』에서 언급한 Jonathan Huebner 교수의 혁신 데이터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에는 인류가 혁신 가능한 한계치의 9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과 GDP성장의 추이를 보면 유사한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데, 최근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저성장 역시 혁신의 감소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애플은 작년까지 아이폰 등 새로운 디바이스의 개발로 혁신의 대명사로 군림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더 이상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후발주자들이 부상하면서 주가 역시 상승세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 후발주자들이 바로 국내 업체들인데, 국내 업체들 역시 향후 중국 등 새로운 제조업 기지에 밀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혁신생태계를 관리하는 역할
기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발전시켜 이를 산업화 과정으로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 성장에 있어 혁신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그림 2. 인류의 혁신건수와 미국의 장기 성장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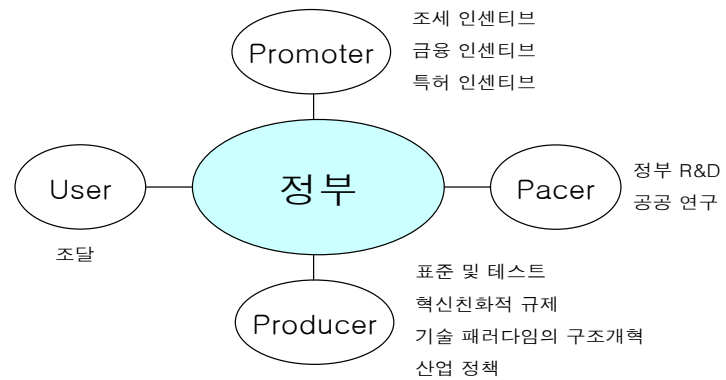
자료: The Great Stagnation』 - Tyler Cowen

그림 3. 애플, 혁신의 대명사. 그러나 지금은...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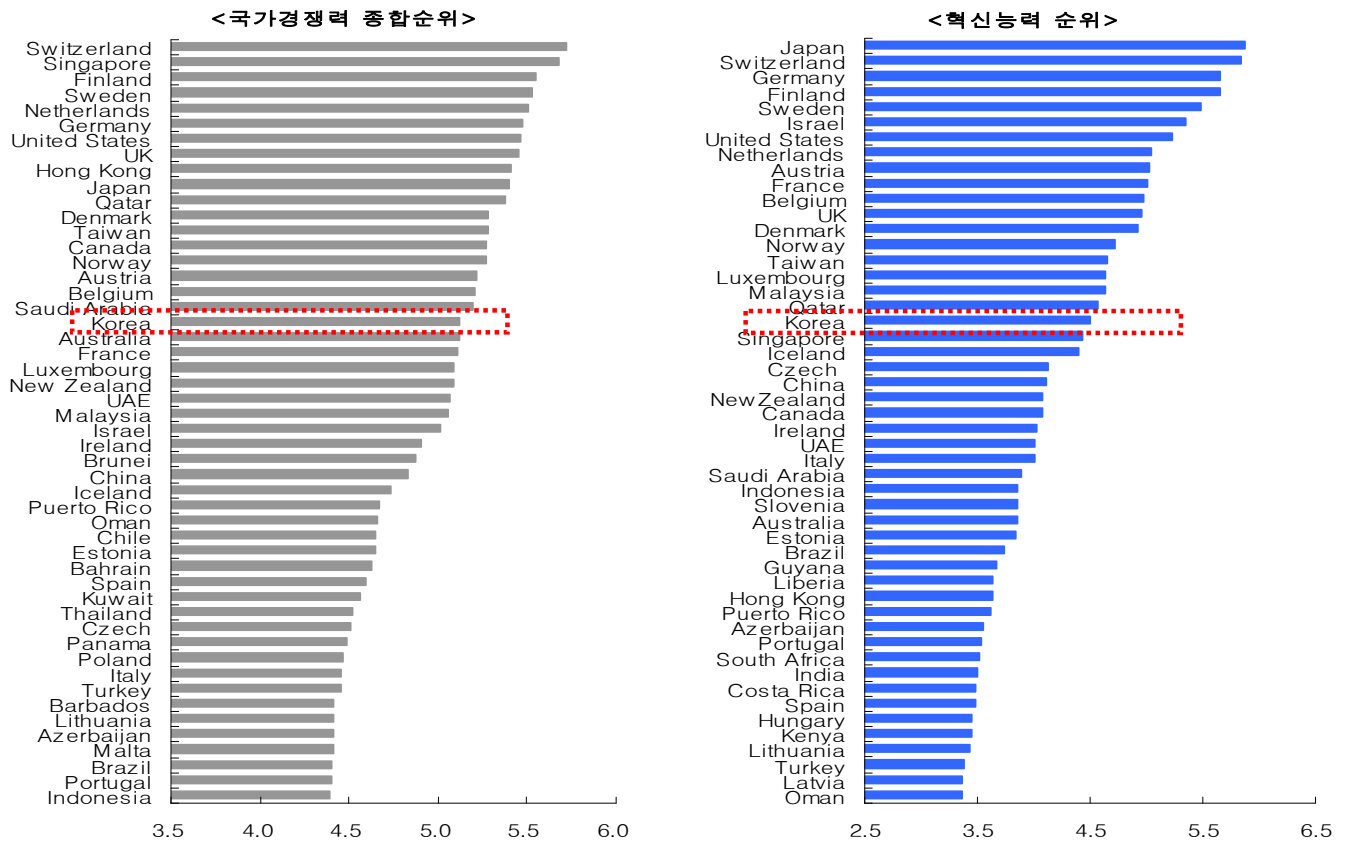
그림 4. 혁신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역할



자료: 한국기술혁신학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한국은 국가 경쟁력과 혁신능력 모두 전세계 19위를 기록 중이다. 한국과 많은 부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혁신능력이 1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역시 혁신능력의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5. 국가별 경쟁력 순위와 혁신능력 순위



주: 2012-2013년 순위. 막대의 길이는 항목별 스코어

자료: WEF,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방송, 콘텐츠, 정보통신, 원자력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업무분야의 관심 종목에 주목

방송과 콘텐츠, 정보통신, 원자력 등 주요 업무분야의 관심종목에 주목할 필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분야 중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가 요구하는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는 방송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가 될 전망이다. 주식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은 IPTV 및 유선방송 등과 관련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콘텐츠 관련주들은 SBS, CJ E&M, 미디어플렉스 등이 있다.

한편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시도가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등의 분야가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엔텔스, 케이엠더블유와 케이아이엔엑스 등이 관련주로 꼽힌다.

기타 원자력은 일본 지진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여전히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은 기술수준이 높고 공기가 짧은데다, 가동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경쟁력이 확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원자력 산업 역시 정책적인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전기술, 일진에너지 등이 있다.

이상을 토대로 아래 표에서는 해당 종목들의 실적과 밸류에이션 등을 정리했다.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 4.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업무분야 관련 종목

분야	종목명	매출액(억원)	영업이익(억원)	PER(배)
IPTV/유선방송	KT	251,135	15,356	7.8
	SK브로드밴드	26,969	1,313	17.4
	LG유플러스	115,542	5,815	11.9
콘텐츠 제작	SBS	7,614	781	13.8
	CJ E&M	16,039	888	20.2
	미디어플렉스	1,030	98	16.4
빅데이터/클라우드	엔텔스	595	90	10.7
	케이엠더블유	3,122	381	8.3
	케이아이엔엑스	312	57	12.8
원자력	한전기술	9,599	1,955	20.7
	비에이치아이	7,050	498	10.0

주: 2013년 예상치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경제 이정민 02-768-3267 jennifer.lee@dwsec.com
박준일 02-768-3717 justin.park@dwsec.com

미국 금융주의 강세 배경에 주목

글로벌 마켓 동향: 한 주 동안 MSCI World Index(달러 기준)는 -0.8% 하락했다. 선진국(-0.5%)과 신흥국(-2.7%)증시 모두 동반 약세를 보였다.

미국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이 상존한 가운데 소비심리 지표 둔화와 키프로스 사태에 따른 우려로 11거래일 만에 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따른 뱅크런과 전염효과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나타냈다.

중국 증시는 정부의 유동성 규제 여파로 조정 국면이 지속되었고, 브라질 증시는 정부의 물가 상승 억제 노력이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하락했다. 한편 인도에는 연내 2번째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추가 금융완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는 힘을 받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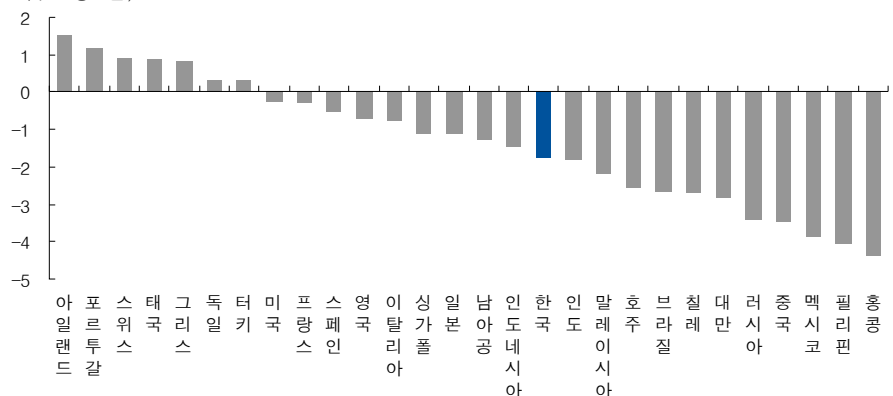
글로벌 섹터 동향: 지난 한 주간 S&P500 은행지수는 +0.4% 상승하며 S&P500(-0.3%)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 연준이 발표한 18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17개 은행이 기준치를 통과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이전보다 개선되며 미국 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미국 금융주 강세의 배경에는 자산건전성 개선과 함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을 P(NIM: 순이자마진)와 Q(대출 증가)로 나눠볼 때, 순이자마진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지만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대출 성장이다.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기준이 완화되는 한편 기업의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미국 상업은행의 기업대출과 민간대출은 전년 대비 각각 11.4%, 2.4% 증가했다. 이와 같은 대출증가는 순이자마진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미국 금융주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 증시 주간 등락률

(주간 등락률, %)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마켓 동향: 키프로스발 우려로 선진국 및 신흥국 증시 동반 약세

한 주 동안 MSCI World Index(달러 기준)는 -0.8% 하락했다. 선진국(-0.5%)과 신흥국(-2.7%)증시 모두 동반 약세를 보였다.

선진시장 동향: 한 주 동안 선진북미와 선진유럽 지역은 각각 -0.3%, 선진태평양 지역은 -1.9% 하락했다.

미국 다우지수,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키프로스 우려로 반락

미국 다우지수는 한 주간 소폭 상승(+0.03%)에 그쳤다. 다우지수는 지난 6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11거래일 만에 반락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이 상존한 가운데 15일 발표된 3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가 2011년 12월 이후 최저치인 71.8을 기록했고, 키프로스 구제금융 소식에 유로존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다.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지수 역시 13.4p로 반등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따른
뱅크런 및 전염효과 우려로 유럽
재정취약국 주가 약세**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독일(+0.3%) 증시가 상승한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증시는 각각 -0.8%, -0.5% 하락했다. 지난 주말 트로이카(IMF, EU, ECB)는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예금 계좌를 대상으로 예금자의 손실 분담을 의무화하였다. 이례적인 예금자 손실부담에 따른 뱅크런 및 전염효과 우려로 재정취약국의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 키프로스의 금융기관 비거주자 예금 중 대부분이 러시아 및 영국계 자금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국가의 낙폭이 더 컸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재차 5%에 근접하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유로화는 1.29달러까지 하락했다.

신흥시장 동향: 한 주 동안 이머징아시아 지역은 -2.9%, EMEA 지역은 -2.3%, 라틴 지역은 -2.8% 하락했다.

**정부의 유동성 규제에
중국 증시 조정 지속**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 주간 -3.1% 하락했는데 특히 소재(-6.7%), 경기소비재(-7.5%), 금융(-4.6%) 등 경기 민감 섹터의 낙폭이 컸다. 중국 정부가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고, 중국 2월 경제지표가 부진하며 경기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증시의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브라질, 긴축에 대한 우려로
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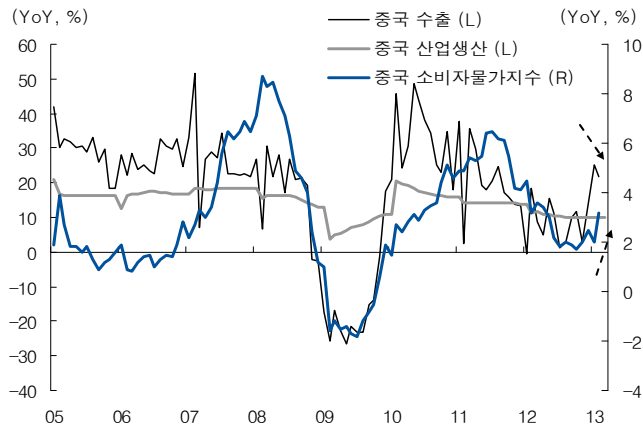
이머징라틴 지역에서는 브라질(-2.7%), 칠레(-2.7%), 멕시코(-3.9%) 등 주요국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브라질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기초 생필품에 붙는 9.25%의 연방세를 폐지하는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주가는 약세를 이어갔다.

**인도, 올해 들어 2번째
금리인하(0.25%p)**

인도 중앙은행은 19일 금융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7.75%→7.5%) 인하했다. 인도의 금리인하는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들어 2번째이다. 그러나 인도 역시 도매물가지수(2월: YoY 6.84%) 및 소비자물가지수(2월: YoY 10.91%)의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고공권에 머물러 있어 추가 금융완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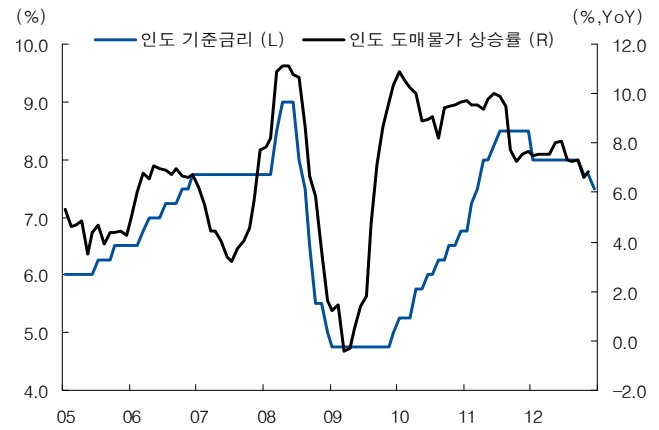
한편 지난 8일 멕시코 중앙은행도 3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4.5%→4.0%)했다. 반면 브라질(7.25%)과 말레이시아(3.0%), 인도네시아(5.75%)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림 1. 중국 인플레이션 및 경기둔화 우려 고조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인도 연내 2번째 금리 인하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섹터 동향: 미국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긍정적

한 주 동안 선진국에서는 소재(-0.7%)와 금융(-0.5%)섹터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신흥국에서는 전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특히 소재(-3.4%), 산업재(-3.4%), 금융(-0.5%) 등 경기민감 섹터의 낙폭이 컸다.

미국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개선으로 금융주 상대적 강세

키프로스 구제금융 소식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S&P500 은행지수는 +0.4% 상승하며 S&P500(-0.3%)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 연준이 발표(8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14일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자본지출계획 최종 승인)한 대형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가 이전보다 개선되며 미국 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국 18개 대형은행 중 17개가
연준 목표 Tier1 비율 달성

미국 18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최종 17개 은행이 통과했다. 이번 테스트는 미 연준이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실업률 12.1%까지 상승, 주가 50%이상 급락, 주택가격 20%이상 하락)에서 2014년 말까지 은행의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 common ratio)이 얼마나 하락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18개 은행은 총 4,620억 달러의 손실을 내고도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연준이 설정한 목표치 5%를 상회했다.

씨티그룹 1년 만에 자산건전성
양호 평가

개별 은행으로는 GM의 금융회사였던 Ally파이낸셜의 기본자기자본비율이 1.52%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테스트에서 탈락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은행들은 5~6%대의 기본자기자본비율을 기록하며 간신히 목표치 5%를 상회했고, 지난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씨티그룹의 경우 8.22%의 기본자기자본비율을 기록해 1년 만에 자산건전성이 양호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주 강세의 배경: 자산건전성
개선과 더불어 수익성 개선
기대감

최근 미국 금융주 강세의 배경에는 자산건전성 개선과 함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성을 P(NIM: 순이자마진)와 Q(대출 증가)로 나눠볼 때, 순이자마진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지만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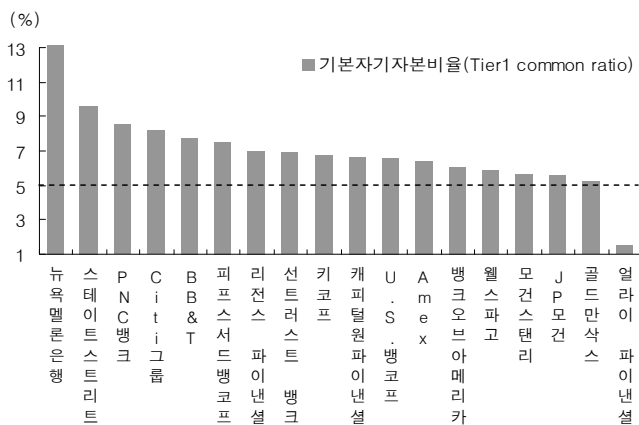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기준은 완화, 기업의 대출 수요는 증가

주목할 점은 대출 성장이다. 미국 연준이 주요 은행의 대출 심사관을 상대로 진행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을 완화하며 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중 대/중견기업(연 매출액 5천만 달러 이상)에 대한 대출기준을 완화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7.4%였고, 소기업에 대한 대출기준을 완화했다는 응답은 7.7%를 기록했다. 또한 대/중견기업과 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각각 19.1%, 15.3%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기준이 완화되는 한편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출증가는 순이자마진의 부진을 상쇄, 미국 금융주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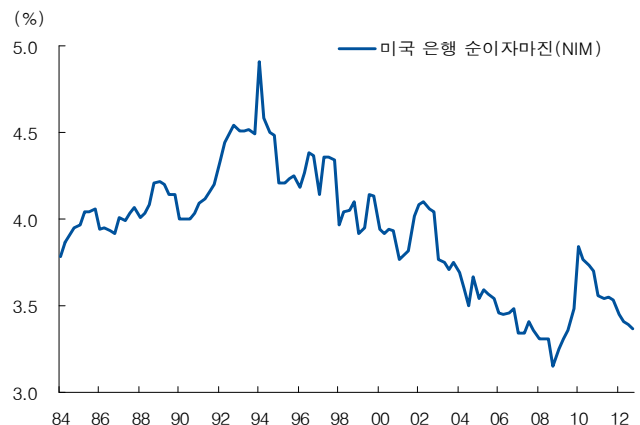
실제로 지난 2월 미국 상업은행의 기업대출과 민간대출은 전년 대비 각각 11.4%, 2.4% 증가했다. 부동산대출 역시 1월 대비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이와 같은 대출증가는 순이자마진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미국 금융주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미국 18개 대형은행 중 17개가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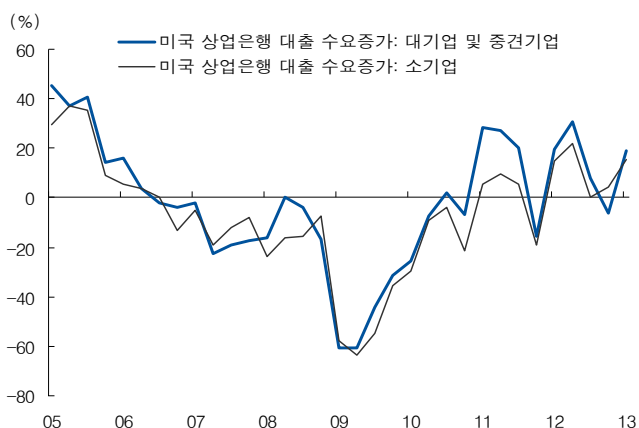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Board,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미국 은행 순이자마진은 하락, 그러나 속도는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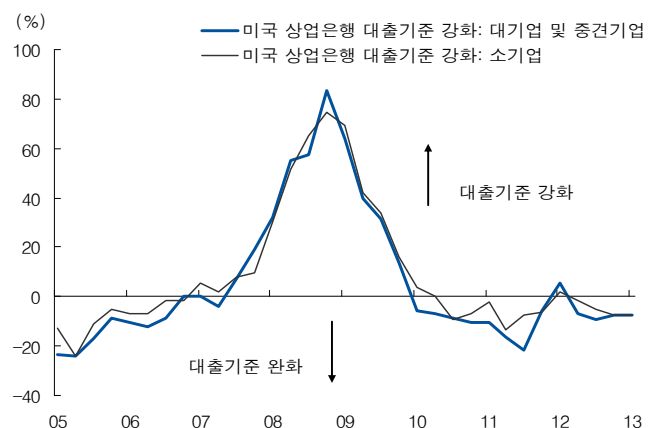
자료: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미국 상업은행 대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상업은행 대출기준 완화는 대출 증가에 긍정적 요인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주간 상승률/하락률 상위 20대 종목

(%)

상승률 상위 종목						하락률 상위 종목					
Rank	기업	국가	업종	5D	1M	Rank	종목	국가	업종	5D	1M
1	VM웨어	미국	IT/SW	9.8	10.4	1	아메리카모빌	멕시코	통신	-14.7	-18.9
2	푸르덴셜	영국	보험	8.6	17.1	2	워프홀딩스	홍콩	부동산	-10.2	-9.0
3	HP	미국	IT/HW	8.6	36.0	3	프라다	이탈리아	유통	-9.6	2.8
4	에실로르	프랑스	헬스케어	8.1	18.1	4	차이나생명보험	중국	보험	-9.4	-11.2
5	디렉티비	미국	미디어	7.6	11.3	5	귀주마오타이지우	중국	음식료	-8.5	-4.8
6	신에초화학	일본	소재	7.0	12.8	6	신흥기 부동산	홍콩	부동산	-8.2	-13.7
7	야후재팬	일본	IT/SW	5.9	9.6	7	에넬 SPA	이탈리아	유틸리티	-7.9	-11.1
8	가즈프롬	러시아	에너지	5.5	6.1	8	씨텍증권	중국	증권	-7.8	-13.1
9	프랑스텔레콤	프랑스	통신	5.3	10.6	9	중국 상하이차	중국	자동차	-7.4	-17.9
10	현대차	한국	자동차	5.0	4.0	10	아스트라 자동차	인도네시아	자동차	-7.2	0.0
11	롤스로이스 홀딩스	영국	자동차/항공	4.1	9.0	11	카니발	영국	유통	-7.2	-5.6
12	애플	미국	IT/HW	4.1	-1.0	12	ICICI 은행	인도	은행	-7.1	-7.1
13	록소티카	이탈리아	유통	3.8	14.8	13	청궁 홀딩스	홍콩	부동산	-6.8	-9.9
14	EADS	프랑스	항공	3.8	19.5	14	텐센트	중국	IT/SW	-6.5	-4.3
15	캐나다 CNR	캐나다	에너지	3.8	7.4	15	핑안보험	중국	보험	-6.4	-8.0
16	마라톤 오일	미국	에너지	3.7	0.9	16	세일즈포스닷컴	미국	IT/SW	-6.4	-0.5
17	브리스톨마이어스 스쿼	미국	헬스케어	3.6	6.3	17	소시에테제네럴	프랑스	은행	-6.3	-5.0
18	데본에너지	미국	에너지	3.6	-2.2	18	차이나퍼시픽 보험	중국	보험	-6.3	-13.9
19	기아차	한국	자동차	3.4	0.6	19	MTR	홍콩	운송	-6.1	-4.7
20	뱅크오브아메리카	미국	은행	3.4	4.4	20	인튜이티브 서지컬	미국	헬스케어	-6.0	-14.7

주: 3월 18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주요 52주 신고가 종목

(십억 달러, %)

기업	국가	업종	산업 그룹	시가총액	5D	1M	YTD	52주 신고가 기록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미국	산업재	자본재	85.0	-0.2	2.2	13.1	2013-03-18
노퍽서던 코프	미국	산업재	운송	23.6	0.1	5.0	21.5	2013-03-18
레킷벤키저	영국	필수소비재	유통	51.0	0.7	4.9	21.5	2013-03-18
켈로그	미국	필수소비재	음식료	22.5	1.1	4.2	11.5	2013-03-18
에너지코석유	미국	에너지	에너지	42.4	1.2	3.1	13.9	2013-03-18
프리시전 케스트파츠	미국	산업재	자본재	28.4	1.7	4.6	2.4	2013-03-18
버라이즌	미국	통신	통신	139.3	2.0	9.8	12.7	2013-03-18

주: 3월 18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3. 주요 52주 신저가 종목

(십억 달러, %)

기업	국가	업종	산업 그룹	시가총액	5D	1M	YTD	52주 신저가 기록일
바이두	중국	IT	SW	29.8	-4.8	-9.7	-15.1	2013-03-18
귀주마오타이지우	중국	필수소비재	음식료	28.3	-8.5	-4.8	-18.9	2013-03-18
아메리카모빌	멕시코	통신	통신	70.2	-14.7	-18.9	-22.1	2013-03-15
인튜이티브 서지컬	미국	헬스케어	헬스케어	19.6	-6.0	-14.7	-1.0	2013-03-15
바릭골드	캐나다	소재	소재	28.7	-0.2	-7.0	-15.0	2013-03-14

주: 3월 18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Market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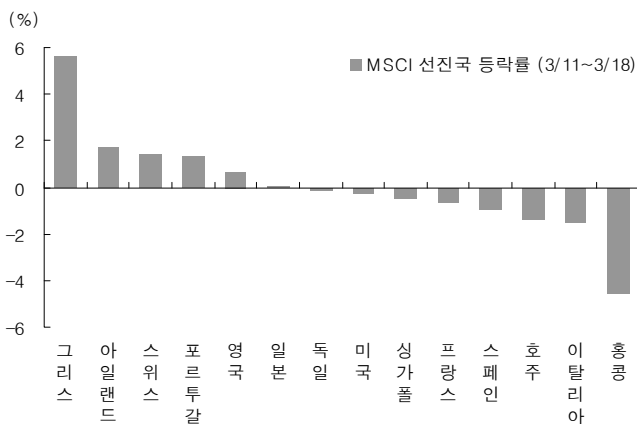
- 선진국과 이머징 증시 동반 하락. 이머징아시아 지역의 낙폭 두드러져
- 선진국: 스페인/이탈리아, 키프로스 구제금융 소식으로 하락. 금융, 소재 섹터 약세
- 신흥국: 한국/중국 증시 약세. 반면 태국은 외국인 매수세로 상승세 지속

MSCI 글로벌 지수 상대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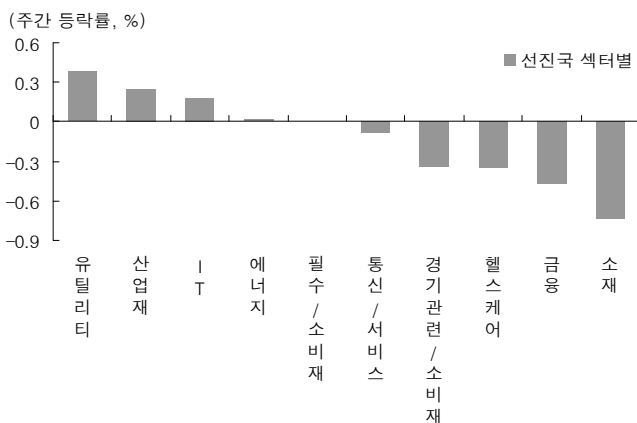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선진국 국가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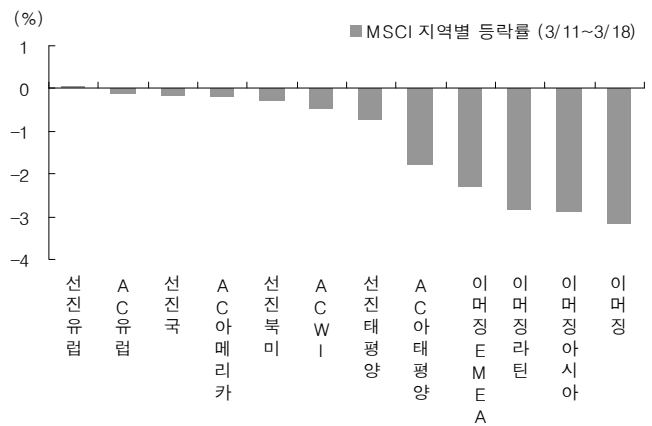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선진국 섹터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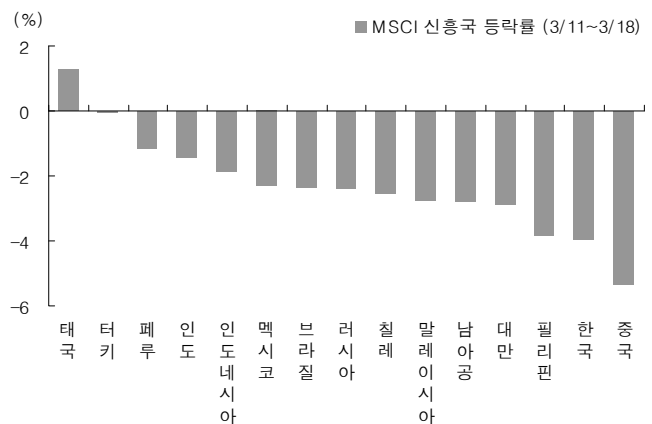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지역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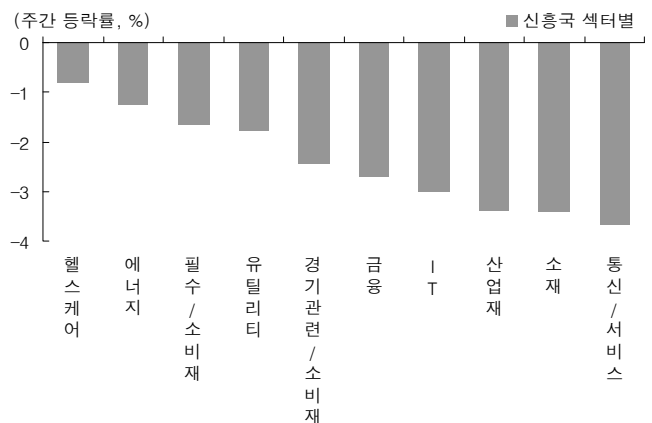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신흥국 국가별 주간 등락률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신흥국 섹터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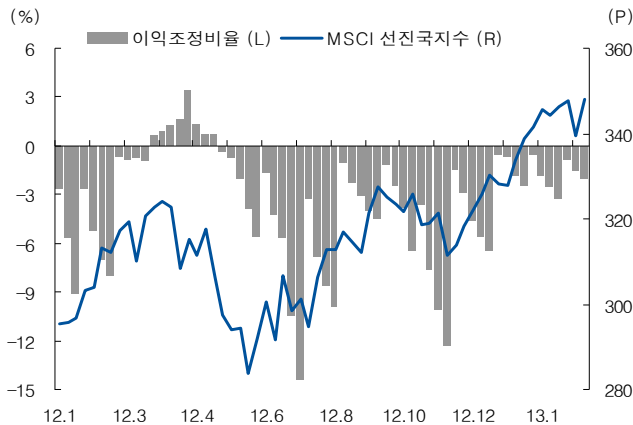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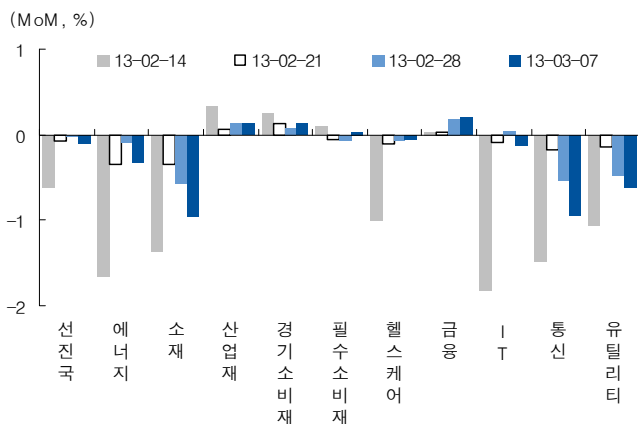
- 일본, 대만 제외한 주요국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지속
- 선진국과 이머징 모두 금융 섹터의 실적 추정치 변화율 (+) 지속
- 중국과 한국의 12개월 예상 PER 각각 9.5배, 8.7배로 이머징마켓 평균(10.5배) 하회

MSCI 선진국 이익조정비율과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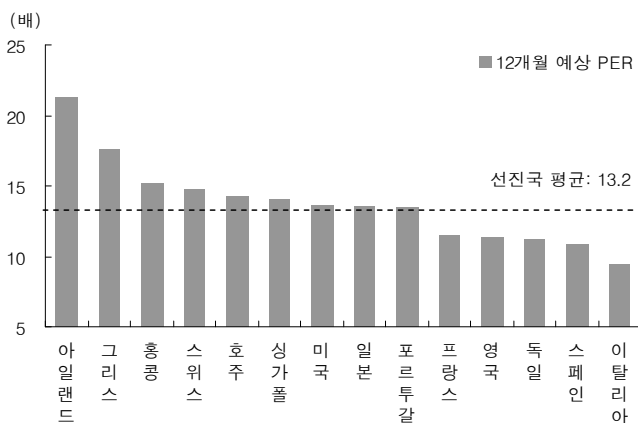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선진국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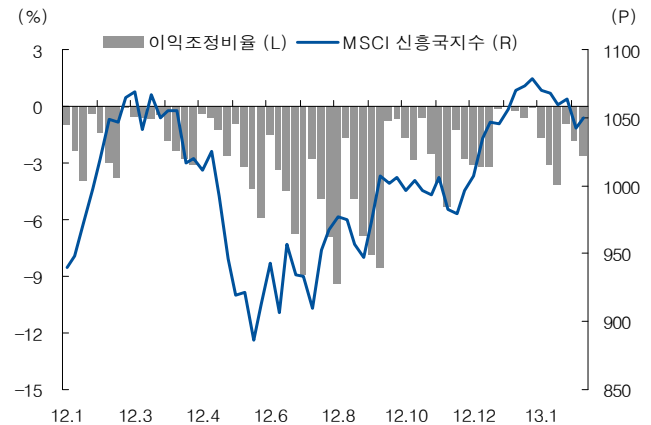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선진국 국가별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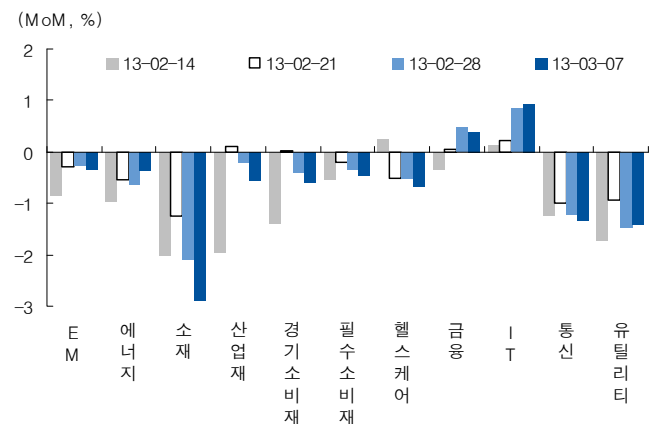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신흥국 이익조정비율과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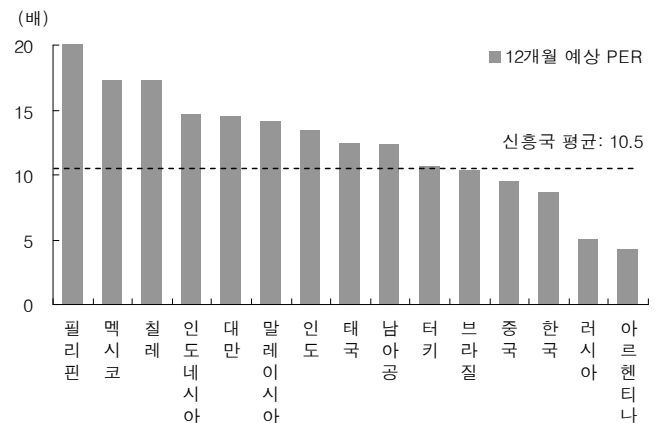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신흥국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신흥국 국가별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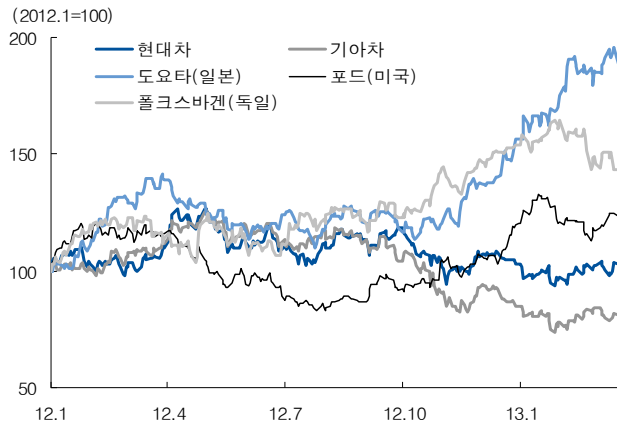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Peer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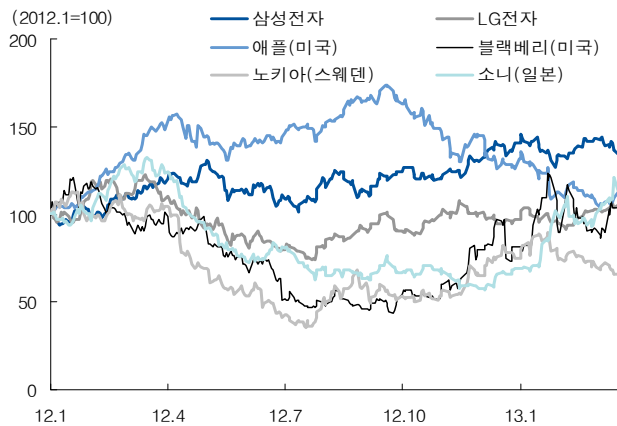
- 자동차: 현대, 기아차 소폭 하락. 독일, 미국, 일본 자동차 업체 주가 모두 약세
- IT: 지난 14일 삼성전자 갤럭시 S4 발표, 주가는 수급 영향으로 약세
- 헬스케어: 오바마 대통령의 헬스케어 프로그램 지원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고조

글로벌 자동차 섹터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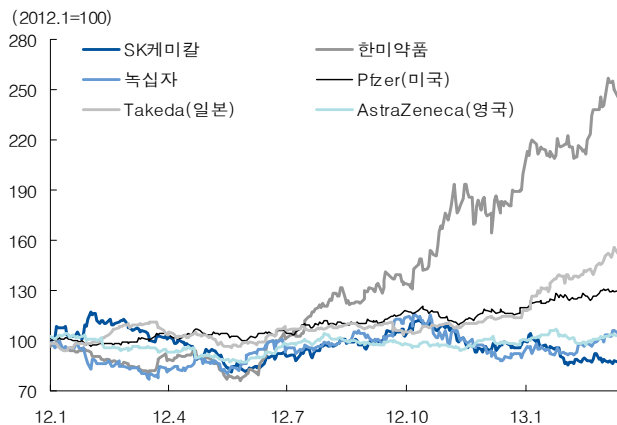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IT/HW 섹터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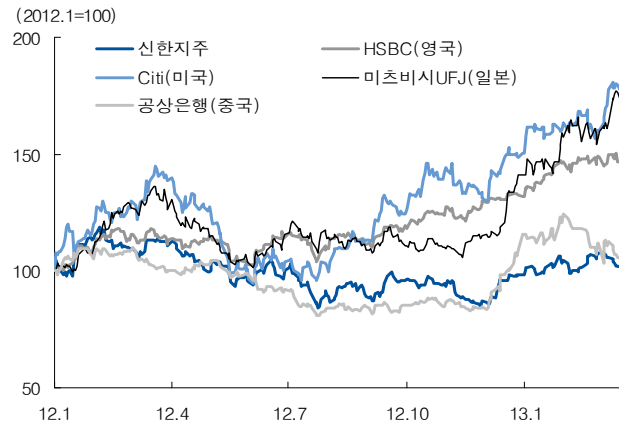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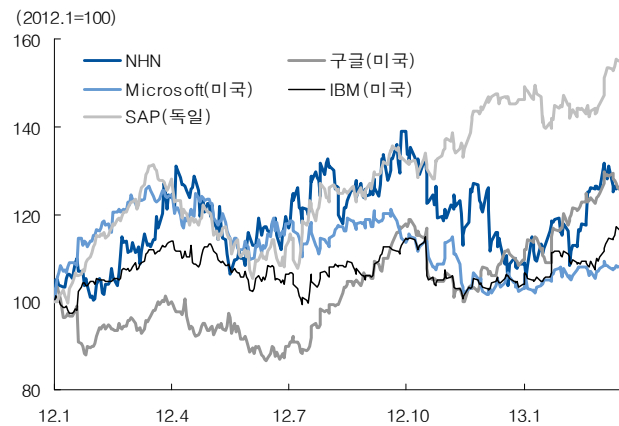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금융 섹터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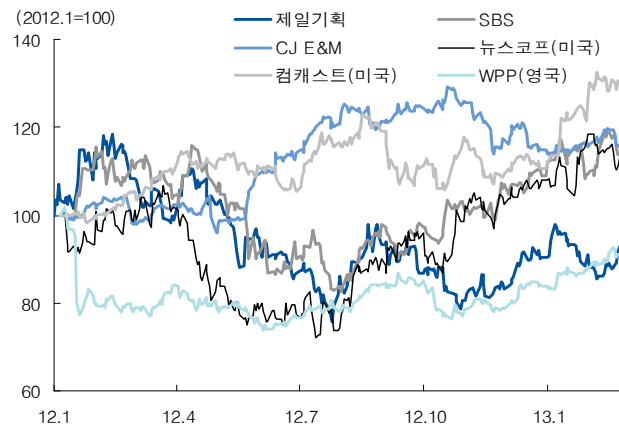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IT/SW 섹터 상대주가 추이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미디어/광고 섹터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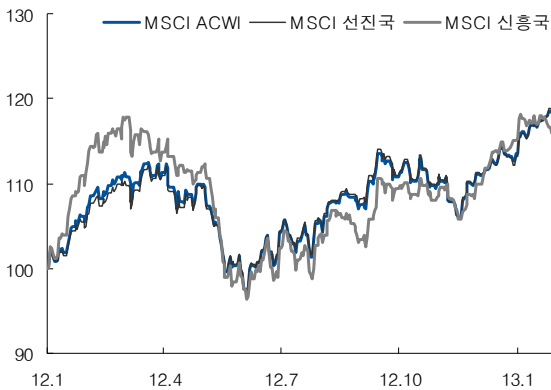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Korea Market Monitor

- 한국 이익조정비율 반락. 이머징마켓 대비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갭 축소
- 지난 한 달간 글로벌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인 섹터는 금융, IT, 산업재, 필수소비재 섹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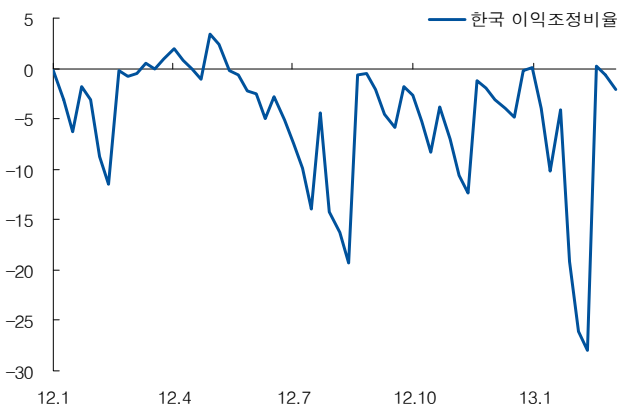
MSCI 한국 지수 상대강도

(2012.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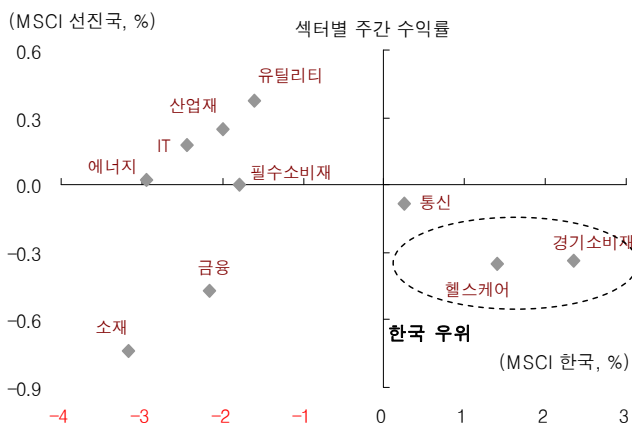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한국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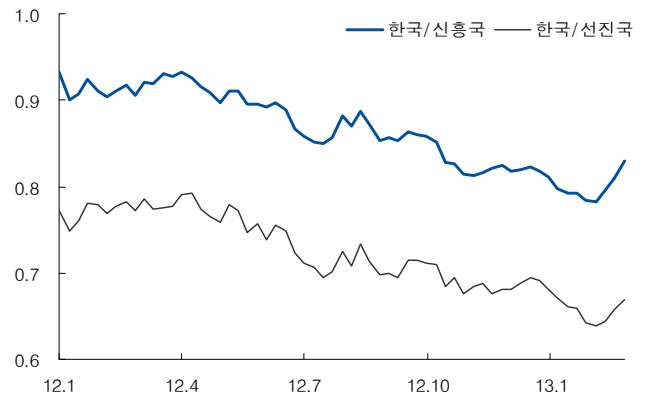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vs. 선진시장 섹터별 수익률 비교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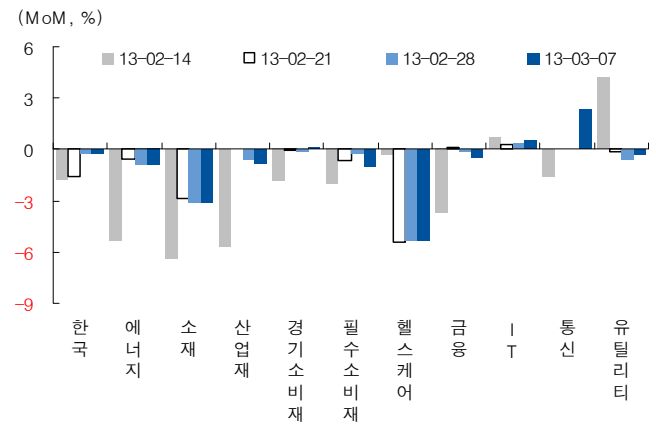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한국 지수 상대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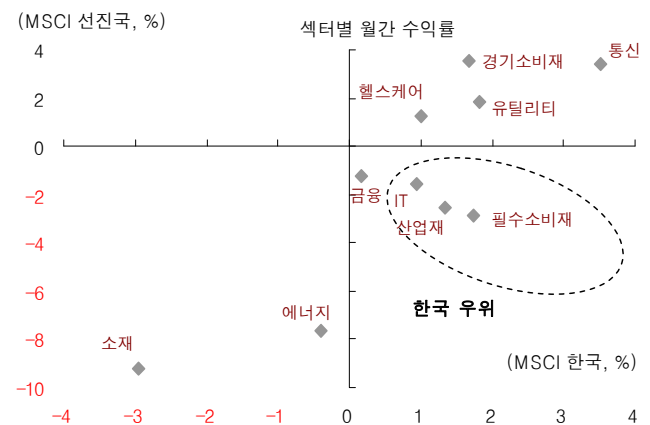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MSCI 한국 섹터별 실적 추정치 변화율



자료: IBE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vs. 선진시장 섹터별 수익률 비교 (월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요약] 모멘텀 전략: 추세의 단순함으로 시장을 이기다

모멘텀(momentum) 전략은 자산 가격이 기존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관성을 이용해 가격이 오른 자산을 매수하고 내린 자산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모멘텀 효과는 과거의 정보로부터 미래 자산 가격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시장 효율성에 위배되는 이상현상으로 분류되며 수익 원천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본 자료에서는 모멘텀 전략이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유용한 전략인지 점검해보고 모멘텀 전략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적으로 20개 업종 가운데 모멘텀을 이용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4개 업종들로 Long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4개 업종들로 Short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2차적으로 상승 추세인 종목들로 Long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고 하락 추세인 종목들로 Short 포트폴리오를 압축해 성과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매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경우 거래비용 0.35%를 가정했을 때 Long 포트폴리오는 연 25.7%의 성과를 기록했다. KOSPI 시가총액 400위 이하의 소형주들로 Long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연 33.9%까지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3월 모멘텀 상위 업종은 제약, 호텔레저, 음식료, 반도체이고 모멘텀 하위 업종은 건설, 기계조선, 화학, 철강금속이다. <업종 내 종목은 본 자료를 참고 바람>

※ 본 자료는 3월 20일 발간 예정인 '모멘텀 전략: 추세의 단순함으로 시장을 이기다'를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AI분석을 참조바랍니다.

I. 모멘텀 전략: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모멘텀 전략은 과거에 자산이
오른 자산을 매수하는 전략

모멘텀(momentum)은 자산의 가격이 기존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모멘텀 전략은 이러한 자산 가격의 관성을 이용해 가격이 오른 자산(winner)을 매수하고 가격이 내린 자산(loser)을 매도해 수익을 얻는 전략이다.

모멘텀 현상은 다양한 금융
자산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

과거의 자산 가격으로부터 미래의 자산 가격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멘텀 효과는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에 위배되는 이상현상(anomaly)로 분류된다.

모멘텀 전략의 수익 원천을 위험에 대한 보상(risk premium)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에서는 거시경제 환경 변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모멘텀 이상현상에 대한 행동경제학적인 접근에서는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행태로 인해 정보가 자산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적정 가치로부터 일시적 괴리가 발생한다고 본다.

본 자료에서는 모멘텀 전략이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유용한 전략인지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투자전략으로써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모멘텀 전략 방법론

1단계) 모멘텀을 기준으로 업종 선정: 1차적으로 모멘텀을 기준으로 업종을 선정했다. 업종을 과거 측정 구간에서의 누적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정렬한 후 5분위(quintile)로 나누어 최상위 5분위(상위 20%)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매수(long)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최하위 5분위(하위 20%)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매도(short)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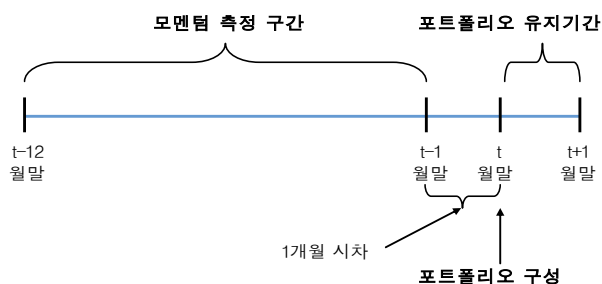
2단계) 추세를 기준으로 종목 선정: 1단계에서 선정된 업종들에 추세 필터(trend filter)를 적용해서 포트폴리오 종목을 압축했다. 최상위 5분위 업종들 가운데 상향 추세인 종목들로 매수(long)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최하위 5분위 업종들 가운데 하향 추세인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도(short)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모멘텀 및 추세 측정 방법: 모멘텀(momentum)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을 해당 기간 동안의 변동성(월별 수익률의 표준편차)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추세(trend)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경우 상승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회할 경우 하락 추세에 있다고 판단했다.

업종 분류 기준: 업종 구분은 WICS(WISEfn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를 기준으로 분류한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표 1>. 업종 구성 종목은 연초 구성을 기준으로 1년간 적용했고 KOSPI 종목을 대상으로 했다. 생존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때 발생하는 생존편의(survivorship bias)를 줄이기 위해서 상장폐지된 종목들도 분석에 포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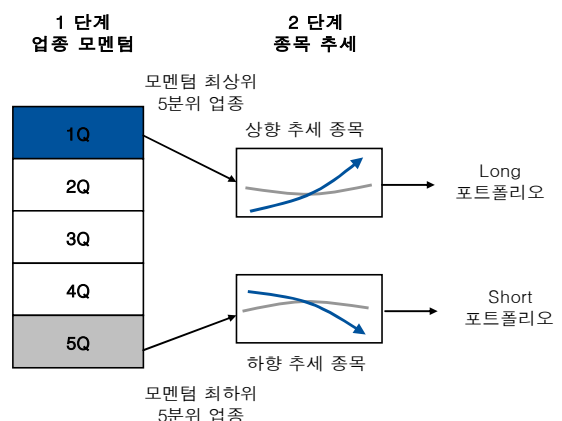
포트폴리오 구성주기: 월간 단위로 매월 말 모멘텀과 추세를 측정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다. 주문 시 발생하는 시장 충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모멘텀 측정과 포트폴리오 구성 시점 사이에 1개월의 시차를 두었다. 모멘텀 이익은 지속성을 가지므로 1개월의 시차로 인한 성과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1. 매월 말 모멘텀을 측정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1단계: 모멘텀 기준으로 업종 선정, 2단계: 추세로 종목 선정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III. 성과측정

모멘텀에 따른 업종 포트폴리오 성과

1단계로 모멘텀을 적용해 업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성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 12개월의 누적 수익률을 기준으로 모멘텀을 측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모멘텀 상위 20% 업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월 1.76%
수익률 기록

표 1. 업종 모멘텀 포트폴리오 성과(월간 수익률)

(단위: %)

	1Q	2Q	3Q	4Q	5Q	1Q-5Q
수익률 평균	1.76	1.12	0.89	1.15	0.54	1.22
수익률 표준편차	7.19	7.49	7.63	7.57	7.79	5.91
포트폴리오-BM 수익률	0.56	-0.08	-0.32	-0.13	-1.02	1.22
IR(information ratio)	0.20	-0.03	-0.11	-0.04	-0.35	0.71

주: 1) 1Q는 모멘텀 상위 20% 업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5Q는 하위 20% 업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2) 200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월간 수익률의 통계치

3) 벤치마크(BM) 수익률 = 업종 동일가중 평균 수익률

4) IR = 평균(포트폴리오 수익률-BM 수익률)/표준편차(포트폴리오 수익률-BM 수익률)

자료: Quanti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측정 기간과 유지 기간에 따른 성과

모멘텀을 측정하는 구간 길이에 따른 성과 차이와 모멘텀 이익의 지속성을 측정했다. 모멘텀 이익은 업종 동일가중 평균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로 계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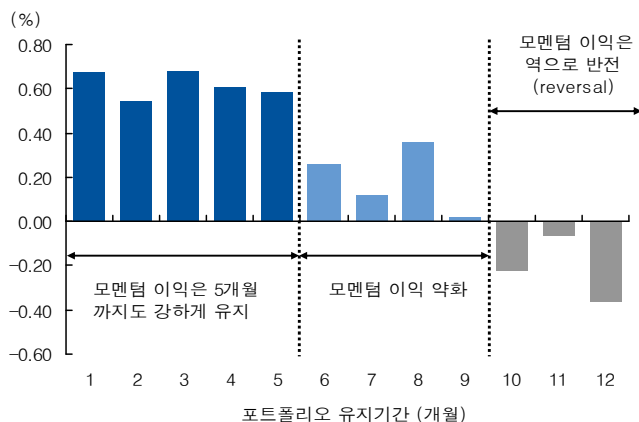
Long 포트폴리오는 구성 이후
5개월까지도 매월 0.5% 이상
초과 수익률 발생

Long 포트폴리오(1Q)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 이후 5개월까지도 매월 +0.5%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유지했다. 그러나 Short 포트폴리오(5Q)에서는 첫 달 이후 모멘텀 이익이 빠르게 감소했다<그림 3, 4>.

Long 포트폴리오의 모멘텀 측정
기간은 12개월이 최적

Long 포트폴리오와 Short 포트폴리오의 측정 기간은 각각 12개월과 9개월일 때 최적이었고 유지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면 Long과 Short 모두 측정 기간이 12개월일 때 가장 성과가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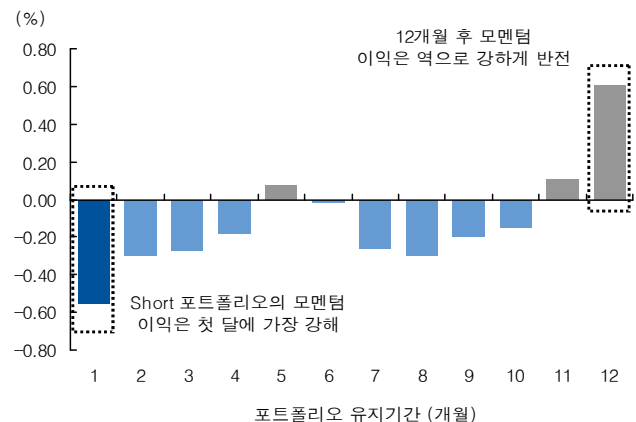
그림 3. Long 포트폴리오의 모멘텀 이익은 5개월 후까지 강하게 지속



주: 측정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Long 포트폴리오 구성 이후 월별 초과 수익률

자료: Quanti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Short 포트폴리오의 모멘텀 이익은 첫 달 이후 빠르게 감소



주: 측정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Short 포트폴리오 구성 이후 월별 초과 수익률

자료: Quanti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추세로 업종 내 종목 압축을 통한 성과 향상

업종 내에서 추세를 이용해
종목을 압축하면 Long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연 25.7%

업종의 모멘텀을 이용해 1차적으로 Long/Short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에 업종 내에서
종목의 추세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면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업종 모멘텀과 종목 추세를 이용해 구성된 Long 포트폴리오와 Short 포트폴리오의 수익
률은 거래비용 0.35%를 가정했을 때 각각 연 25.7%와 3.0% 였다<그림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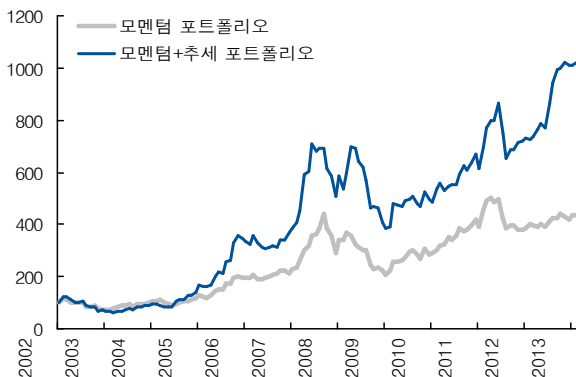
모멘텀 효과는 소형주에서
극대화, 연 33.9%

모멘텀 효과는 소형주에서 극대화되며 KOSPI 시가총액 400위 이하 종목들로 Long 포
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연 33.9%까지 수익률이 높아졌다<그림 7>.

3월 모멘텀 상위 업종은 제약, 호텔레저, 음식료, 반도체이고 모멘텀 하위 업종은 건설,
기계조선, 화학, 철강금속이다. <업종 내 종목은 본 자료를 참고 바람>

그림 5. 업종 모멘텀과 종목 추세 결합 시 Long 포트폴리오 성과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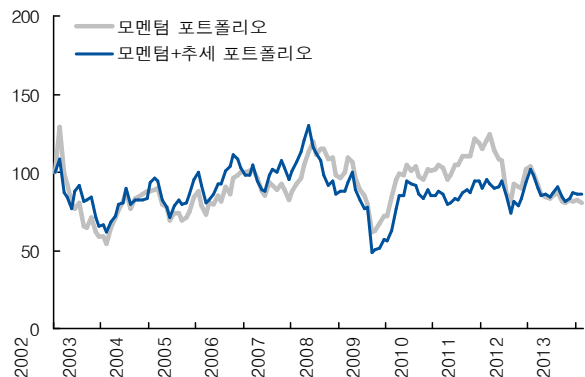
(2002.01.31 = 100)



W주: 거래비용 0.35% 가정 (거래세: 0.3%, 매수/매도 왕복 수수료: 0.05%)
자료: Quant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Short 포트폴리오에서는 추세를 통한 종목 압축 효과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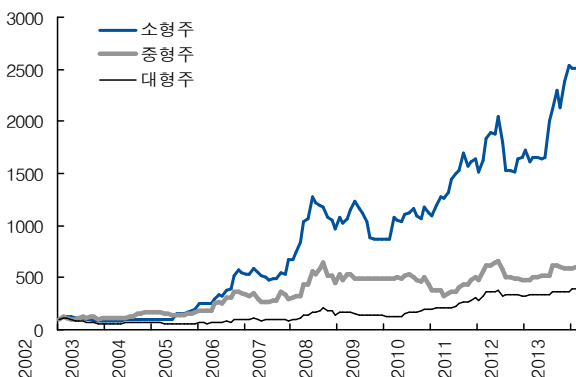
(2002.01.31 = 100)



자료: 거래비용 0.35% 가정 (거래세: 0.3%, 매수/매도 왕복 수수료: 0.05%)
자료: Quant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소형주로 구성된 Long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가장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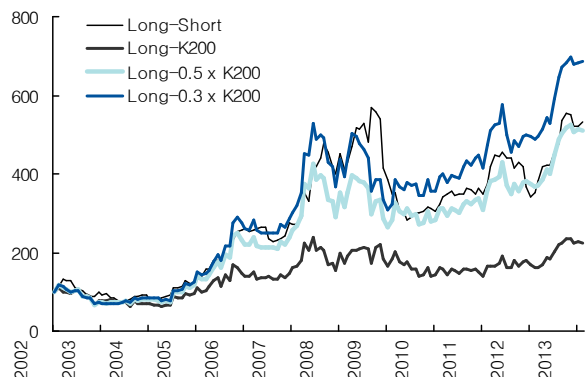
(2002.01.31 = 100)



자료: Quant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Long-Short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변동성 감소 효과 작아

(2002.01.31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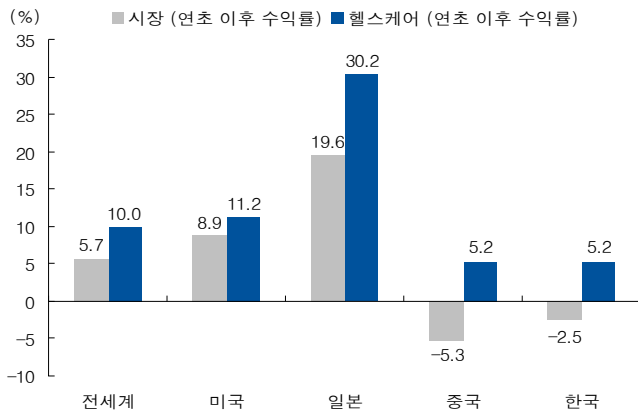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연초 이후 헬스케어 섹터 상승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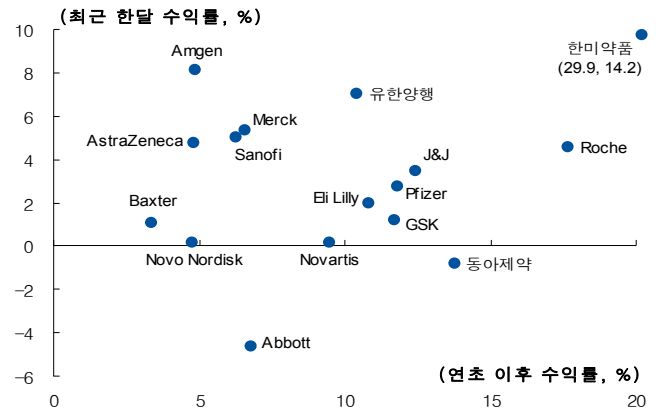
- 연초 이후 국가별 헬스케어 섹터는 시장 보다 나은 수익률 기록. 해외 및 국내 주요 헬스케어주 수익률도 대체적으로 강세 현상 뚜렷
- 국가별 신정부 수립 후 헬스케어 관련 정책,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은 향후 헬스케어 섹터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
- 최근 헬스케어 / KOSPI 상대강도는 과거 2005년 고점까지 상승 여력 남아 있으며, 향후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헬스케어 섹터 주목 할 필요

그림 1. 연초 이후 국가별 헬스케어 강세 현상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해외&국내 주요 헬스케어 회사의 수익률: 대체적으로 (+) 기록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국가별 신정부의 헬스케어 관련 정책들

국가별	헬스케어 관련 정책
미국	- 오바마케어 (Obamacare): 전 국민을 공적 건강보험 대상으로 함 (10년간 9400억 달러 소요) -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통해 다음해 부터 500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시 -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지원 확대
일본	- 고용흡수력이 큰 의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분야가 일본 정부의 핵심 육성 산업 - 성장전략으로 '공격적인 농업정책'과 재생의료, 제약관련 전략 제시 - 10조 3000억엔에 달하는 아베노믹스 부양규모 중 30% 가량은 의료, 육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중국	- 인당 공공위생비용 30위안 인상, 2009년 두배 공립병원건설, 민간의료 기구 설립을 격려 - 전통/민족 의학 산업발전 - 전국민 의료보장체계 개선, 아동백혈병 등 20대 질병 보장 시범공작 개시
한국	- 신의료기기 R&D, 4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 의료장비와 ICT의 융합으로 의료 비용 증가 및 고령화 등의 사회적 이슈 해결 - 기획재정부, 2013년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 항목 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발표 (97.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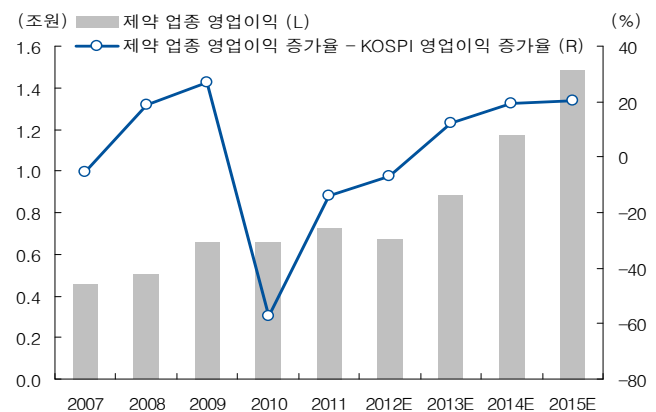
자료: 박근혜 정책공약, 중국언론보도, KJE, Global Window, 각종 언론,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KOSPI 대비 헬스케어 상대강도: 2005년 고점까지 여유 있어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향후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헬스케어 섹터에 주목 할 필요



주: 확정치 및 추정치 있는 16개 제약 기업 기준/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삼성테크윈 (012450)

우려보다 커지고 있는 기대

통신장비/기타

Company Report
2013. 3. 20

(Maintain)	매수
목표주가 (원, 12M)	81,000
현재주가(13/03/19,원)	64,800
상승여력	25%

영업이익(13F,십억원)	177
Consensus 영업이익(13F,십억원)	160
EPS 성장률(13F,%)	20.0
MKT EPS 성장률(13F,%)	22.5
P/E(13F,x)	21.9
MKT P/E(13F,x)	9.1
KOSPI	1,978.56
시가총액(십억원)	3,443
발행주식수(백만주)	53
유동주식비율(%)	67.5
외국인 보유비중(%)	14.7
베타(12M,일간수익률)	0.82
52주 최저가(원)	55,000
52주 최고가(원)	80,900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9.5 -5.0 -8.6
상대주가	9.8 -3.5 -5.3



담당업종

박원재

02-768-3372
william.park@dwsec.com

류영호

02-768-4138
young.ryu@dwsec.com

예상보다 양호한 1Q13 실적. OP 189억원으로 17.9% 상향

전화 회의(컨퍼런스 콜)를 통해 삼성테크윈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1Q13 추정 매출액을 기존 6,503억원에서 6,688억원으로, 추정 영업이익은 기존 161억원에서 189억원으로 각각 2.9% 및 17.9% 상향 조정하였다.

CCTV, 반도체 부품(DIS) 및 반도체 장비(IMS) 사업의 추정치는 변동이 없으나, 파워 사업과 방산 사업의 매출액을 각각 3.8% 및 7.1% 상향하였고, 영업이익도 각각 11.8% 및 60.7% 상향 조정 하였다. 파워 사업부 에너지 장비 매출액 증가와 방산 사업의 해외 수출 증가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3

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1Q13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5.3% 증가하나 영업이익은 41.9% 감소한 수치이고, 전분기 대비로는 각각 21.8% 및 44.4% 감소한 부진한 실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부품 사업은 개선의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9.4% 감소한 585억원으로 추정되고, 영업적자는 -117억원으로 -20% 수준까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방 산업의 부진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1Q13 실적이 전년동기 보다 나쁘다는 것보다는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Q13 영업이익 455억원, 3Q13 영업이익 593억원으로 실적 개선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실적 개선을 고려하여 2013년 추정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1.9% 및 8.0% 상향 조정하였다.

시장의 우려보다 기대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 유효

당 리서치센터는 1월 31일 보고서를 통하여, 삼성테크윈의 실적이 부진할 전망이지만 **투자 전략적으로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추천하였다. 동사의 단기, 중기, 장기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완성과 미래에 대한 꿈의 존재에는 밸류에이션 할인(Premium)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보안사업(CCTV)과 고속침마운터 사업은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사업(압축기)과 그래핀(Graphene)도 시장 전망이 밝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전략은 현 시점에서도 유효하다.

투자의견 '매수' 유지하고, 수익 추정 변경을 고려하여 12개월 목표주가 81,000원으로 상향

삼성테크윈의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12개월 목표주가는 기존 79,000원에서 81,000원으로 2.5% 상향 조정한다. 목표주가는 2013년 IFRS 연결 기준 추정 BPS 27,214원에 PBR 3.0배(유지)를 적용하였다. PBR 3.0배는 과거 5년간 평균인 3.7배를 20% 할인한 것이다. 현재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25.0%이다.

결산기 (12월)	12/10	12/11	12/12	12/13F	12/14F	12/15F
매출액 (십억원)	2,924	2,948	2,935	3,166	3,445	3,938
영업이익 (십억원)	228	89	156	177	214	247
영업이익률 (%)	7.8	3.0	5.3	5.6	6.2	6.3
순이익 (십억원)	233	231	131	157	193	230
EPS (원)	4,394	4,346	2,466	2,959	3,629	4,319
ROE (%)	20.0	16.2	8.3	9.9	11.8	13.6
P/E (배)	23.6	12.2	24.2	21.9	17.9	15.0
P/B (배)	5.6	2.1	2.4	2.5	2.4	2.3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삼성테크윈,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삼성테크윈의 수익 예상 변경

표 1. 삼성테크윈 분기별 실적 추이

(십억원)

구분		2012					2013F					1Q13F				
		1Q	2Q	3Q	4Q	연간	1QF	2QF	3QF	4QF	연간	YoY	QoQ	기존	변경	
매출액	SIS	180.2	198.1	190.5	150.3	719.1	180.4	198.4	222.2	230.2	831.2	0.1	20.0	180.4	0.0	
	Digital Solution	82.9	83.1	73.5	63.9	303.4	58.5	58.4	58.4	58.4	233.8	-29.4	-8.5	58.5	0.0	
	IMS	60.5	89.7	84.0	66.0	300.2	62.7	78.4	101.9	91.7	334.7	3.6	-5.0	62.7	0.0	
	Power System	148.4	202.0	158.3	352.0	860.7	200.3	212.1	284.9	309.8	1,007.1	35.0	-43.1	192.9	3.8	
	Defense Program	163.0	180.6	185.2	222.6	751.4	167.0	183.2	187.4	221.4	758.9	2.4	-25.0	155.8	7.1	
	계	635.0	753.5	691.5	854.8	2,934.8	668.8	730.5	854.8	911.5	3,165.7	5.3	-21.8	650.3	2.9	
영업이익	SIS	18.9	22.8	22.7	11.0	75.3	14.4	23.8	30.0	16.8	85.0	-23.7	31.5	14.4	0.0	
	Digital Solution	0.2	0.2	-2.0	-5.0	-6.7	-11.7	-5.8	-0.1	0.2	-17.5	적전	131.7	-11.7	0.0	
	IMS	2.5	8.3	7.0	-2.1	15.7	1.9	2.5	3.6	3.3	11.3	-24.2	-189.1	1.9	0.0	
	Power System	5.0	11.8	-0.8	20.0	36.1	9.3	13.1	12.7	20.3	55.5	87.1	-53.5	8.3	11.8	
	Defense Program	6.0	9.4	10.0	10.2	35.7	5.0	11.9	13.1	12.4	42.4	-17.0	-51.1	3.1	60.7	
	계	32.6	52.5	36.9	34.1	156.0	18.9	45.5	59.3	52.9	176.7	-41.9	-44.4	16.1	17.9	
영업이익률 (%, %p)	SIS	10.5	11.5	11.9	7.3	10.5	8.0	12.0	13.5	7.3	10.2	-2.5	0.7	8.0	0.0	
	Digital Solution	0.2	0.2	-2.7	-7.9	-2.2	-20.0	-10.0	-0.2	0.3	-7.5	-20.2	-12.1	-20.0	0.0	
	IMS	4.1	9.3	8.3	-3.2	5.2	3.0	3.2	3.5	3.6	3.4	-1.1	6.2	3.0	0.0	
	Power System	3.4	5.9	-0.5	5.7	4.2	4.7	6.2	4.5	6.5	5.5	1.3	-1.0	4.3	0.3	
	Defense Program	3.7	5.2	5.4	4.6	4.7	3.0	6.5	7.0	5.6	5.6	-0.7	-1.6	2.0	1.0	
	계	5.1	7.0	5.3	4.0	5.3	2.8	6.2	6.9	5.8	5.6	-2.3	-1.2	2.5	0.4	
세전계속사업이익		42.2	45.6	39.3	37.1	164.2	20.4	49.5	63.0	52.4	185.3	-51.8	-45.2	17.9	13.6	
당기순이익		34.9	41.2	34.0	20.9	131.0	17.3	42.0	53.5	44.5	157.2	-50.5	-17.5	15.2	13.6	13.6
세전계속사업이익률			6.7	6.0	5.7	4.3	5.6	3.0	6.8	7.4	5.8	5.9	-3.6	-1.3	2.8	0.3
당기순이익률		5.5	5.5	4.9	2.4	4.5	2.6	5.7	6.3	4.9	5.0	-2.9	0.1	2.3	0.2	0.2

주1: IFRS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회계변경기준 미반영, 추후변경 예정

주2: IFRS 연결 기준, SIS = Security & Image Solution(CCTV 사업), Digital Solution(반도체 부품 사업), IMS = Intelligent Machinery & Solution(반도체 장비 사업)

자료: 삼성테크윈,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삼성테크윈 수익 예상 변경

(십억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률		
	13F	14F	15F	13F	14F	15F	13F	14F	15F
매출액	3,108	3,343	3,799	3,166	3,444	3,938	1.9	3.0	3.7
영업이익	164	197	227	177	214	247	8.0	8.5	9.1
세전계속사업이익	171	214	254	185	231	275	8.4	8.3	8.4
순이익	145	178	212	157	193	229	8.4	8.3	8.4
EPS	2,730	3,349	3,985	2,958	3,629	4,319	8.4	8.3	8.4
영업이익률	5.3	5.9	6.0	5.6	6.2	6.3	0.3	0.3	0.3
세전계속사업이익률	5.5	6.4	6.7	5.9	6.7	7.0	0.4	0.3	0.3
순이익률	4.7	5.3	5.6	5.0	5.6	5.8	0.3	0.3	0.3

주: IFRS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회계변경기준 미반영, 추후변경 예정

자료: 삼성테크윈,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진성티이씨 (036890)

아직 끝나지 않은 아메리칸 드림

기계

Company Report
2013. 3. 20

(Maintain)	매수
목표주가 (원, 12M)	12,000
현재주가(13/03/19, 원)	8,350
상승여력	44%

영업이익(13F, 십억원)	15
Consensus 영업이익(13F, 십억원)	20
EPS 성장률(13F, %)	155.9
MKT EPS 성장률(13F, %)	22.4
P/E(13F, x)	17.2
MKT P/E(13F, x)	9.1
KOSDAQ	550.01
시가총액(십억원)	167
발행주식수(백만주)	20
유동주식비율(%)	54.1
외국인 보유비중(%)	5.2
베타(12M, 일간수익률)	1.00
52주 최저가(원)	6,790
52주 최고가(원)	12,750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7 -24.8 -23.8
상대주가	-1.3 -23.3 -20.5



Small Cap

박승현

02-768-4194

seunghyeon.park@dwsec.com

What's new?: 실적은 2012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점진적 회복 예상

2012년 실적은 중국 굴삭기 시장 침체 및 캐터필라 재고조정 영향 등으로 부진했다. 개별 기준 본사 실적은 매출액 1,717억원(YoY -4%), 영업이익 122억원(YoY -35%), 순이익 61억원(YoY -57%)을 기록했다. 중국 연대법인 실적도 매출액 434억원(YoY -28%), 순이익 16억원(YoY 적자전환)의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굴삭기 부품업체들은 전년도 수요 부진, 공급 과잉에 세트업체 재고조정까지 3중고를 겪었지만 올해는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 중국 도시화 관련 인프라설비 투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트업체의 재고조정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건인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올해 114,500대(YoY + 6%)로 전년대비 소폭 회복으로 예상된다.

Catalysts: 국내 유일의 미국 제조업 Re-shoring 수혜주

진성티이씨는 캐터필라와 맺은 3차 독점 장기공급계약(5년간 3천억원 규모)에 기반해 미국 텍사스법인을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장 착공은 올해 2분기, 완공은 4분기, 양산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동사는 **국내 유일의 미국 Re-shoring(생산기지 복귀) 수혜주**로서 미국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향후 텍사스법인 성장성이 주목된다.

동사의 2012~2015년 캐터필라향 매출액은 770억원, 902억원, 1,345억원, 1,640억원 순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캐터필라 매출 비중은 2012년 43%에서 2015년 56%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법인의 2014, 2015년 매출액은 각각 450억원, 750억원으로 예상된다. 텍사스법인의 최대 생산능력은 1,800억원 정도이며 캐터필라 외 밥캣, 존디어 등 현지 업체와 중남미로 진출하는 국내 업체로 매출처 다변화 가능성도 있다.

Valuation: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2,000원으로 하향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2,000원으로 20% 하향 조정한다. 중국 굴삭기 시장 침체와 고객사 재고조정 등을 감안해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다만 캐터필라 장기공급계약에 기반한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해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연결 기준 2013년 실적은 매출액 1,971억원(YoY + 10%), 영업이익 148억원(YoY + 63%), 순이익 97억원(YoY + 167%)으로 예상된다. 전년대비 실적 개선 이유는 중국 업황 개선 및 캐터필라 공급 확대 등이다. 중장기 실적 전망은 올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다가 2014년 미국 텍사스법인 가동으로 실적 레벨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결산기 (12월)	12/09	12/10	12/11	12/12P	12/13F	12/14F
매출액 (십억원)	102	169	201	180	197	254
영업이익 (십억원)	7	17	22	9	15	24
영업이익률 (%)	7.3	9.8	10.9	5.1	7.5	9.4
순이익 (십억원)	-1	30	16	4	10	18
EPS (원)	-30	1,616	857	189	485	874
ROE (%)	-3.7	118.9	35.4	6.7	16.3	24.7
P/E (배)	-	5.4	11.1	44.4	17.2	9.6
P/B (배)	7.9	4.4	3.4	3.0	2.7	2.1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진성티이씨,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LG디스플레이 (034220)

이번 상승세가 불안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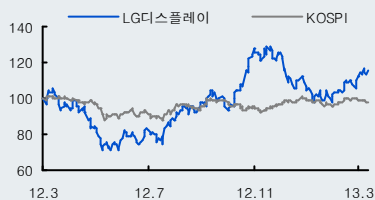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Company Report
2013. 3. 20

(Maintain)	Trading Buy
목표주가(원, 12M)	34,000
현재주가(13/03/19, 원)	32,450
상승여력	5%

영업이익(13F, 십억원)	1,091
Consensus 영업이익(13F, 십억원)	1,297
EPS 성장률(13F, %)	263.8
MKT EPS 성장률(13F, %)	22.5
P/E(13F, x)	13.7
MKT P/E(13F, x)	9.1
KOSPI	1,978.56
시가총액(십억원)	11,611
발행주식수(백만주)	358
유동주식비율(%)	62.1
외국인 보유비중(%)	28.5
베타(12M, 일간수익률)	1.24
52주 최저가(원)	19,600
52주 최고가(원)	36,950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0.6	10.4	11.3
상대주가	10.9	11.8	14.7



디스플레이

황준호

02-768-4140
j.hwang@dwsec.com

오세범

02-768-4135
brian.oh@dwsec.com

What's new? 3~4월 높은 가동률, 2분기말부터 부담으로 작용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2월 이후 패널 출하량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기존 추정치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예상 매출액을 7.1조원(-19% QoQ, +15% YoY), 영업이익 1,582억원(-73% QoQ, 흑전 YoY)으로 기존 예상치(매출액 7.0조원, 영업이익 1,164억원)에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최근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패널 업체(BOE, CSOT)의 8세대 라인 가동률이 90% 이상 유지되고 있다. 다만 패널 업체들의 TV용 7세대 및 8세대 라인 가동률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유지되고 있다. 중국 춘절 수요가 양호했다고는 하지만 재고(6주 이상)가 낮은 상황 아니고 선진국 TV 판매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최근 높은 가동률이 재고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해 TV 패널 출하량이 2.31억대, 세트 출하량이 2.03억대로 패널/세트 비율이 114%로 높게 기록됐다. 채널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과거 패널/세트 비율이 높았던 해 이후에는 패널 가격 약세와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atalyst: 5월 종료되는 중국 보조금 정책의 마지막 프로모션 기회

3월부터 중국 TV 세트 업체들의 패널 주문이 늘어나면서 패널 업체들이 가동률을 올리고 있다. 노동절에 앞서 재고를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노동절이 5월 종료되는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마지막 프로모션 기회라는 점에서 중국 TV 패널 출하량이 4월까지의 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최근 TV 패널 출하량 강세가 수요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하반기 수요를 당겨오는 선수요(pull-in) 효과로 판단된다.

패널 가격은 단기적으로 안정화되겠지만 5월 이후 재고 리스크 상승으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분기까지 실적 모멘텀은 강화되겠지만 하반기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3분기 Apple의 신제품 효과는 예년에 비해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Valuation: 투자의견 Trading Buy, 목표주가 34,000원 유지

LG디스플레이의 투자의견 Trading Buy, 목표주가 34,000원을 유지한다. 1분기 양호한 실적에 이어 2분기에도 TV 패널 출하량 증가, 일부 라인의 감가상각 종료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2분기 매출액 7.3조원(+3% QoQ, +5% YoY), 영업이익 3,220억원(+104% QoQ, +35% YoY)을 예상한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노동절 이후 중국 TV 패널 출하량 감소로 재고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이다. 적정 주가는 올해 BPS 29,077원에 P/B 1.2배를 적용했다.

결산기 (12월)	12/10	12/11	12/12	12/13F	12/14F	12/15F
매출액 (십억원)	25,512	24,291	29,430	30,239	31,008	32,846
영업이익 (십억원)	1,311	-764	912	1,092	1,092	1,416
영업이익률 (%)	5.1	-3.1	3.1	3.6	3.5	4.3
순이익 (십억원)	1,156	-771	233	848	916	1,188
EPS (원)	3,232	-2,155	652	2,371	2,559	3,320
ROE (%)	11.0	-7.3	2.3	8.0	8.2	9.9
P/E (배)	12.3	-	47.6	13.7	12.7	9.8
P/B (배)	1.4	0.9	1.1	1.1	1.1	1.0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LG디스플레이,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1. LG디스플레이 2013년 1분기 주요 손익 추정 및 컨센서스 (K-IFRS 연결 기준)

(십억원, %, %p)

	4Q11	3Q12	4Q12F		성장률	
			KDB대우 추정치	컨센서스	YoY	QoQ
매출액	6,184	8,743	7,086	6,886	14.6	-18.9
영업이익	-211	587	158	116	흑전	-73.1
영업이익률	-3.4	6.7	2.2	1.7	5.7	-4.5
세전이익	-197	503	138	82	흑전	-72.5
순이익	-128	314	117	77	흑전	-62.6

자료: FnGuid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LG디스플레이의 2012~2014년 수익예상 변경 (K-IFRS 연결 기준)

(십억원, 원, %)

	변경전			변경후			변경률			변경 이유
	12P	13F	14F	12P	13F	14F	12P	13F	14F	
매출액	29,430	30,639	31,526	29,430	30,239	31,008	0.0	-1.3	-1.6	-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환경
영업이익*	912	1,043	1,057	912	1,091	1,092	0.0	4.7	3.3	
순이익	233	819	898	233	848	916	0.0	3.6	2.0	
EPS	652	2,289	2,510	652	2,371	2,559	0.0	3.6	2.0	
영업이익률	3.1	3.4	3.4	3.1	3.6	3.5	0.0	0.2	0.2	
순이익률	0.8	2.7	2.8	0.8	2.8	3.0	0.0	0.1	0.1	
원/달러 환율	1,127	1,042	1,033	1,127	1,047	1,033	0.0	0.5	0.0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3. LG디스플레이 분기별 영업 실적 추이 및 전망 (K-IFRS 연결 기준)

(십억원, %)

구분	1Q12	2Q12	3Q12	4Q12	1Q13F	2Q13F	3Q13F	4Q13F	2012	2013F	2014F
평균 환율 (원/달러)	1,131	1,152	1,133	1,090	1,080	1,043	1,033	1,033	1,127	1,047	1,033
출하 면적 (Km2)	8,089	8,553	9,173	10,062	8,564	9,121	9,635	9,967	35,818	37,288	39,606
평균 가격 (USD/m2)	669	701	733	802	766	765	780	789	731	775	758
매출액	6,184	6,910	7,593	8,743	7,086	7,275	7,760	8,119	29,430	30,239	31,008
노트북	928	967	987	874	839	832	875	829	3,756	3,376	3,322
모니터	1,299	1,175	1,215	1,399	1,276	1,119	1,173	1,223	5,089	4,791	4,836
TV	2,906	3,386	3,569	3,759	3,189	3,392	3,306	3,369	13,621	13,256	13,324
중소형	1,051	1,382	1,822	2,710	1,782	1,932	2,405	2,697	6,965	8,816	9,525
원가	5,856	6,140	6,792	7,637	6,393	6,402	6,878	7,239	26,425	26,912	27,457
재료비	4,427	4,712	5,237	6,039	4,864	4,999	5,447	5,804	20,416	21,115	21,786
감가상각비	990	1,065	1,188	1,227	1,147	1,009	1,024	1,017	4,470	4,197	3,987
판매비	539	531	504	519	534	550	567	584	2,093	2,236	2,459
영업이익*	-211	239	297	587	158	322	315	296	912	1,091	1,092
영업이익률*	-3.4	3.5	3.9	6.7	2.2	4.4	4.1	3.6	3.1	3.6	3.5
EBITDA	779	1,090	1,643	1,499	1,280	1,363	1,598	1,209	5,011	5,450	5,506
EBITDAM	12.6	15.8	21.6	17.2	18.1	18.7	20.6	14.9	17.0	18.0	17.8
증가율 (QoQ/YoY)											
출하 면적 증가율	-3.9	5.7	7.2	9.7	-14.9	6.5	5.6	3.4	15.2	4.1	6.2
평균 가격 증가율	-2.2	4.8	4.6	9.4	-4.5	-0.1	2.0	1.1	-0.4	6.1	-2.2
매출액 증가율	-6.4	11.7	9.9	15.1	-19.0	2.7	6.7	4.6	21.2	2.7	2.5
노트북	8.0	4.2	2.1	-11.4	-4.0	-0.9	5.1	-5.2	5.8	-10.1	-1.6
모니터	-1.7	-9.5	3.4	15.1	-8.9	-12.2	4.8	4.3	1.6	-5.8	0.9
TV	-6.5	16.5	5.4	5.3	-15.2	6.4	-2.5	1.9	18.1	-2.7	0.5
중소형	-20.5	31.5	31.8	48.7	-34.2	8.4	24.5	12.1	65.8	26.6	8.0
원가 증가율	-6.5	4.8	10.6	12.4	-16.3	0.1	7.4	5.3	14.5	1.8	2.0
재료비	-10.1	6.4	11.1	15.3	-19.5	2.8	9.0	6.5	14.3	3.4	3.2
감가상각비	-0.4	7.6	11.5	3.3	-6.5	-12.0	1.5	-0.7	22.4	-6.1	-5.0
판매비 증가율	9.9	-1.5	-5.0	2.9	3.0	3.0	3.0	3.0	-1.9	6.8	10.0
영업이익 증가율*	적지	흑전	24.3	97.6	-73.0	103.7	-2.2	-6.2	흑전	19.7	0.0
영업이익률 %p*	-1.2	6.9	0.5	2.8	-4.5	2.2	-0.4	-0.4	6.9	0.5	-0.1
EBITDA 증가율	-7.3	40.0	50.7	-8.8	-14.6	6.5	17.2	-24.3	73.6	8.8	1.0
EBITDAM %p	-0.1	3.2	5.9	-4.5	0.9	0.7	1.8	-5.7	5.1	1.0	-0.3

자료: LG디스플레이,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Not Rated

목표주가 (원, 12M)	-
현재주가(13/03/19,원)	9,890
상승여력	-

영업이익(13F,십억원)	19
Consensus 영업이익(13F,십억원)	18
EPS 성장률(13F,%)	22.8
MKT EPS 성장률(13F,%)	22.4
P/E(13F,x)	7.7
MKT P/E(13F,x)	9.1
KOSDAQ	550.01
시가총액(십억원)	118
발행주식수(백만주)	12
유동주식비율(%)	9.8
외국인 보유비중(%)	1.8
베타(12M,일간수익률)	0.92
52주 최저가(원)	4,350
52주 최고가(원)	11,300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9	28.8	44.0
상대주가	6.3	30.2	47.3



Small Cap

박승현

02-768-4194

seunghyeon.park@dwsec.com

유아이디 (069330)

태블릿PC가 끌고, 터치패널이 밀고

Snapshot: Glass 기반 ITO 코팅 임가공 전문업체

유아이디는 1990년 설립됐으며 LCD, 터치패널 등 ITO 코팅 제품과 PDP필터 제품 공급. 부문별 매출 비중은 2011년 기준 ITO코팅 60%, PDP필터 40% 순. 2010년부터 삼성전자에 PLS패널 ITO코팅 납품 시작. 터치스크린패널(TSP) ITO 코팅 사업은 L사향 G2(Glass-Two)방식, N사향 G1F(Glass-One Film)방식 제품 공급으로 올해부터 양산 실적 기대. PDP필터 사업은 최근 업계 구조조정 및 원가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Issue update: 삼성전자 태블릿PC 판매 확대 및 터치패널 양산 실적에 주목

삼성전자는 2012년 하반기 이후 태블릿PC 시장에서 공격적인 생산 계획과 마케팅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태블릿PC 출하량은 2012년 약 1,600만대에서 올해 4천만대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 동사의 삼성디스플레이 내 점유율은 2012년 70% 수준에서 올해 더욱 확대될 전망. 2013년 PLS패널 ITO코팅 매출액은 최근 단가 인하를 감안해도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터치패널 ITO 코팅 사업은 올해 본격적인 양산 실적 기대. 최근 LG그룹이 Cover Glass 일체형 터치패널(G2 방식) 관련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도 중저가 스마트폰의 경우 N사를 통해 G1F 방식의 양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 동사는 올해 1월부터 L사로 G2 방식 ITO 코팅 납품을 시작했고, 5월부터 N사로 G1F 방식 양산을 개시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동사의 터치패널 매출액은 2012년 10억원 정도에서 올해 8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

Valuation: 태블릿PC와 터치패널을 기반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

개별 기준 2012년 실적은 매출액 580억원(YoY +0.1%), 영업이익 161억원(YoY +48.8%), 순이익 124억원(YoY +53.0%)으로 이익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실적 개선 이유는 수익성 높은 PLS패널 물량 증가, PDP필터 수익성 개선 등.

올해도 삼성전자의 태블릿PC 출하량 증가와 터치패널 양산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 예상. **2013년 실적은 매출액 820억원(YoY +41%), 영업이익 193억원(YoY +20%), 순이익 153억원(YoY+23%)으로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올해 삼성디스플레이의 패널 출하량은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올해 동사의 분기별 실적도 상저하고 흐름 보일 전망.

최근 PLS패널 단가 인하 압력 있으나 태블릿PC 시장 성장과 고객사의 판매량 증가로 향후 외형 성장 여력 충분. 터치패널 ITO 코팅 사업은 수율 문제 등 기술적인 이슈 있으나 성장 잠재력도 큰 상황. 2013년 기준 P/E 7.7배 수준에 거래.

결산기 (12월)	12/10	12/11	12/12	12/13F
매출액 (십억원)	11	58	58	82
영업이익 (십억원)	3	11	16	19
영업이익률 (%)	27.5	18.7	27.8	23.5
순이익 (십억원)	0	8	12	15
EPS (원)	-17	684	1,047	1,286
ROE (%)	-0.5	34.8	37.6	33.6
P/E (배)	-	7.6	8.8	7.7
P/B (배)	1.7	2.3	2.8	2.3

주: K-IFRS 개별 기준

자료: 유아이디,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935.9 / 5일 2466.5)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1809.7 / 5일 -12375.3)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유통업	743.3	486.1	철강금속	-215.7	-626.0	건설업	92.8	-304.8	서비스업	-392.5	-1,337.6
전기전자	672.1	2,719.1	화학	-187.4	-945.4	통신업	43.9	291.2	금융업	-324.1	-676.5
서비스업	120.9	318.6	금융업	-177.3	-95.4	의약품	30.1	-132.2	운수장비	-316.9	-938.5
운수장비	95.0	1,832.8	기계	-48.9	-118.5	섬유 의복	29.6	54.1	화학	-285.9	-973.6
전기가스	26.1	282.4	건설업	-39.3	-390.6	기계	11.6	-73.4	유통업	-243.1	68.3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삼성전자	658.3	2,620.8	POSCO	-147.7	-356.9	기아차	130.5	-374.8	삼성전자	-492.8	-8,723.8
삼성물산	647.3	240.6	신한지주	-98.0	-103.3	LG디스플레이	121.4	-7.7	삼성물산	-238.5	-61.0
KODEX레버리지	117.4	-3,688.9	LG디스플레이	-88.5	237.0	SK하이닉스	116.0	870.8	한국전력	-199.0	-513.7
현대모비스	111.1	313.0	SK하이닉스	-85.7	-224.4	NHN	85.1	-85.1	현대중공업	-197.9	-395.5
KODEX 200	92.1	1,042.3	대림산업	-83.4	-93.3	LG전자	83.3	172.8	LG화학	-197.8	-708.6
LG이노텍	85.6	-5.8	KODEX 인버스	-71.2	794.7	한국타이어	70.1	80.6	삼성엔지니어링	-181.5	-330.7
삼성전기	67.0	189.9	고려아연	-66.2	-108.5	대림산업	68.0	-54.5	현대모비스	-158.2	-324.5
SK	60.4	-7.1	한국타이어	-65.4	1.0	SK텔레콤	58.5	387.4	고려아연	-112.2	-110.8
한전KPS	56.2	-111.8	롯데케미칼	-54.4	-129.8	호텔신라	40.7	-0.3	SK	-103.9	-96.2
에이쓰엔씨	54.8	3.8	삼성중공업	-43.3	-390.5	현대차2우B	40.6	48.9	KODEX 200	-103.2	-1,374.7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145.2 / 5일 446.2)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734.5 / 5일 939.0)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유통	48.0	84.7	반도체	-105.8	147.3	반도체	150.0	331.7	통신서비스	-7.3	-23.6
오락.문화	47.6	260.1	방송서비스	-76.3	-276.3	IT부품	108.5	176.9	출판.매체복제	-1.5	7.8
기계.장비	10.7	146.6	통신방송	-75.1	-315.2	제약	79.7	114.2	건설	-0.1	3.6
제약	8.0	229.6	IT부품	-44.4	-307.3	방송서비스	61.5	132.0	금융	0.2	-2.3
일반전기전자	7.9	3.5	건설	-16.5	5.7	통신방송	54.2	108.4	섬유.의류	1.1	-1.5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에스엠	36.6	136.6	CJ E&M	-50.5	-127.2	덕산하이메탈	49.6	86.6	게임빌	-10.7	-25.9
씨젠	25.4	78.0	덕산하이메탈	-50.2	-37.5	GS홈쇼핑	35.7	63.1	오스템임플란트	-8.2	-12.8
인터파크	22.8	17.0	서울반도체	-43.9	-56.0	서울반도체	30.0	29.7	SK브로드밴드	-7.7	-22.5
씨티씨바이오	18.9	21.2	GS홈쇼핑	-26.2	-78.2	차바이오텐	26.0	30.1	젬백스	-7.1	-10.8
서부T&D	18.6	12.5	네팩스	-19.8	-0.1	슈프리마	18.1	17.2	AP시스템	-6.0	59.2
젬백스	14.6	113.9	오스템임플란트	-18.8	-96.7	씨유메디칼	16.1	0.1	나노스	-4.8	-0.4
조이맥스	13.9	-34.2	금화피에스시	-18.5	-0.9	메디포스트	16.0	-7.5	SBS콘텐츠허브	-4.0	-12.0
서원인텍	11.1	25.2	컴투스	-13.1	-6.6	CJ E&M	14.4	17.0	심텍	-3.8	-3.2
코오롱생명과학	11.0	6.9	옵트론텍	-12.1	-24.1	컴투스	12.8	16.8	미래나노텍	-3.8	-4.2
지디	10.4	5.0	차바이오텐	-11.8	59.6	하이룩코리아	12.5	15.7	파트론	-3.6	59.2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ODEX 200	109,487.1	KB금융	-8,068.1	삼성물산	6,820.7	LG디스플레이	-8,139.7
삼성전자	30,521.5	POSCO	-6,091.5	삼성전자	5,077.5	롯데케미칼	-5,188.9
삼성물산	10,562.5	고려아연	-5,251.1	LG이노텍	5,037.6	호텔신라	-3,783.7
NHN	5,468.9	KT&G	-4,139.1	삼성전기	4,565.7	현대차2우B	-3,503.3
LG전자	4,724.8	LG생활건강	-3,529.2	현대모비스	4,411.4	신한지주	-2,805.0
대우인터내셔널	4,284.2	TIGER 200	-3,383.9	기아차	3,592.4	현대위아	-2,746.0
LG이노텍	3,835.9	신한지주	-3,030.4	LG화학	3,418.0	한국가스공사	-2,616.1
롯데쇼핑	3,536.4	LG상사	-2,482.9	대우조선해양	3,055.6	삼성엔지니어링	-2,532.4
삼성전기	3,224.8	기업은행	-2,482.7	KB금융	2,714.7	SK이노베이션	-2,482.8
한전KPS	2,693.3	삼성중공업	-2,430.0	CJ헬로비전	2,681.2	OCI	-2,478.7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B금융	2,515.4	POSCO	-15,324.9	삼성전자	24,055.7	신한지주	-11,066.7
한화	1,462.5	SK하이닉스	-8,601.0	KINDEX200	19,542.1	LG전자	-3,341.2
KODEX 200	1,320.5	SK텔레콤	-1,213.1	삼성물산	17,909.9	KB금융	-2,924.4
현대차	1,131.6	TIGER 200	-816.2	KODEX 200	10,711.0	기아차	-2,574.5
삼성전자	1,051.6	삼성화재	-727.0	KOSEF 200	7,914.5	롯데쇼핑	-2,436.0
LG상사	1,029.9	삼성전기	-399.8	SK하이닉스	5,026.5	삼성전기	-2,424.6
TIGER 인버스	789.2	LG디스플레이	-362.4	SK이노베이션	3,716.7	LG패션	-2,347.9
현대제철	764.2	대덕전자	-357.5	현대건설	3,035.1	강원랜드	-2,329.0
삼성물산	698.7	두산인프라코어	-307.0	현대차2우B	2,626.9	POSCO	-1,985.4
LG패션	633.3	KODEX 인버스	-275.9	KT	1,969.9	LG이노텍	-1,838.7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LG이노텍	450.6	8,555.2	신한지주	9,625.2	9,798.4
한전KPS	621.1	5,617.7	고려아연	11,220.7	6,624.7
이마트	733.3	2,951.9	롯데케미칼	3,627.9	5,444.7
KT	981.4	2,914.0	삼성중공업	6,311.5	4,330.1
삼성테크윈	1,092.4	2,785.1	OCI	3,402.5	2,735.6
한진	354.0	2,631.6	삼성엔지니어링	18,146.2	1,781.6
기아차	13,052.6	2,328.4	아모레퍼시픽	4,555.2	1,470.0
현대건설	2,302.0	1,624.4	KB금융	9,611.4	1,375.3
한솔테크닉스	1,363.7	1,508.6	강원랜드	5,119.5	309.2
현대차	3,275.6	1,311.3	현대중공업	19,787.0	274.9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에스엠	1,899.3	GS홈쇼핑	-2,708.9	메디톡스	1,857.1	금화피에스시	-1,225.0
인터파크	1,239.8	CJ E&M	-1,883.9	CJ E&M	1,643.1	서울반도체	-871.2
게임빌	1,021.2	네패스	-1,606.5	씨티씨바이오	897.9	CJ오쇼핑	-678.5
서부T&D	1,014.8	위메이드	-1,022.0	코오롱생명과학	780.3	인탑스	-587.1
조이맥스	1,005.3	오스템임플란트	-1,003.4	게임빌	743.6	인프라웨어	-574.0
씨젠	773.2	서울반도체	-996.1	서원인텍	690.6	파트론	-487.7
루멘스	749.1	컴투스	-825.8	비에이치	684.4	하이록코리아	-406.5
피앤이솔루션	720.0	제이콘텐트리	-808.5	주성엔지니어링	652.8	바텍	-357.1
젬백스	596.7	성우하이텍	-758.1	뷰익스	634.6	제이브이엠	-336.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496.7	유아아이디	-673.9	CJ프레시웨이	612.1	사람인에이치알	-335.9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인터파크	487.8	메디톡스	-581.1	CJ오쇼핑	1,215.2	덕산하이메탈	-4,154.3
아트라스BX	395.5	에스엠	-572.3	인프라웨어	699.4	메디톡스	-1,088.8
이녹스	305.7	포스코 ICT	-401.7	서원인텍	473.4	CJ E&M	-567.4
게임빌	303.9	이오텍	-308.5	포스코엡텍	384.0	코오롱생명과학	-472.6
AP시스템	207.0	CJ E&M	-293.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73.3	태양기전	-420.4
STS반도체	191.0	원익QnC	-246.2	SBS콘텐츠허브	362.7	옵트론텍	-384.4
시그네틱스	175.2	이엘케이	-241.5	에스엠	352.7	플렉스컴	-335.8
인터로조	147.9	유원컴텍	-192.2	엔텔스	320.7	다음	-299.6
제로투세븐	145.7	하나미이크론	-176.3	위메이드	261.4	평화정공	-260.3
태양기전	143.3	루멘스	-140.8	에스24	259.8	비에이치아이	-243.5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에스엠	228.7	3,659.8	오스템임플란트	823.3	1,877.7
씨젠	849.5	2,541.7	나노스	477.9	773.1
인터파크	675.7	2,284.4	파트론	355.7	761.7
씨티씨바이오	204.4	1,890.5	인터플렉스	16.0	741.2
서원인텍	141.8	1,106.3	제이콘텐트리	245.8	552.4
지디	451.2	1,037.6	바이오톡스텍	18.4	460.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740.1	1,020.3	AP시스템	603.5	309.0
에스24	377.5	887.8	에스비엠	282.8	251.0
주성엔지니어링	630.0	661.3	미디어플렉스	329.2	183.5
매일유업	1,181.7	318.4	심텍	380.8	155.5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당일 선물 시장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옵션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선물 가격 정보

	KOSPI200	1306	1309	1312	KSPH6H9S
기 준 가 격	258.30	260.30	262.15	263.80	1.60
시 가	259.69	261.10	262.80	263.80	1.60
고 가	261.42	263.15	264.55	263.80	1.60
저 가	258.85	260.00	261.90	263.80	1.60
종 가	259.79	260.30	261.90	263.80	1.60
전 일 대 비	1.49	-	-0.25	-	-
이 른 가 격	-	261.30	263.00	264.81	1.70
총 약 정 수 량 *	96,721	149,992	49	-	52
총 약 정 금 액 **	2,889,760	19,637,980	6,461	-	13,621
미 결 제 약 정	-	111173 (-1932)	461 (11)	181 (0)	-
배 당 지 수 ***	2.81% (CD금리)	0.23	0.35	0.36	-
반 응 배 수		1.23	1.03	-	
장 중 평 균 베 이 시 스		1.821			
전 일 대 비		0.034			

주 :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변동폭/일중 현물가격변동폭, KSPH6H9S : 6월물과 9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일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선물 투자자별 매매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58,222	48,487	37,189	436	2,184	520	1,879	1,114
	매 도	59,212	47,647	38,117	536	1,082	556	1,714	1,176
	비 중	39.1%	32.0%	25.1%	0.3%	1.1%	0.4%	1.2%	0.8%
순 매 수 누 적	전 일	-990	840	-928	-100	1,102	-36	165	-62
	누 적	-3,190	2,096	-3,138	-340	4,528	-76	-176	291
매 매 편 향 강 도		-0.84%	0.87%	-1.23%	-10.29%	33.74%	-3.35%	4.59%	-2.71%

주 : 누적은 지난 트리플위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보유		KOSEF	KODEX200
KOSEF	130	0.50%	370	9,734	0.00%	NAV (ETF-NAV)%	26,287	26,231
KODEX200	95	0.36%	2,996	78,706	5.43%		0.11%	-0.16%
	KOSEF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T/E	0.01%	0.04%
증가/100	263.15	261.90	258.54	260.30	259.00	설정주수	0	200
eff.delta	0.87	0.64	1.55	-	1.54	환매주수	0	2700
diff/basis	1.29%	0.81%	-0.48%	0.51	-0.79	상장주수	14250	156600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표 내재변동성	0.165	콜평균	0.135	풋평균	0.185	역사적 (5일)	11.4	역사적 (20일)	12
월물 행사가격		1304					1305		
		265.0	262.5	260.0	257.5	255.0	262.5	260.0	257.5
Call	가격	1.66	2.58	3.75	5.00	6.65	4.70	6.00	7.40
	전일 대비	-0.23	-0.22	-0.15	-0.30	-0.20	-0.10	0.00	0.15
	내재변동성	13.50	13.80	14.00	13.60	13.60	14.30	14.60	14.70
	거래량	125,939	28,130	10,922	5,373	766	137	55	10
	미결제	14,911	8,000	3,193	2,221	793	185	118	31
Put	가격	7.70	6.05	4.75	3.70	2.71	7.65	6.45	5.35
	전일 대비	-0.05	-0.05	0.05	0.00	-0.06	0.15	0.05	0.15
	내재변동성	18.00	17.70	18.00	18.40	18.30	17.00	17.30	17.50
	거래량	3,835	7,355	16,196	66,051	87,759	72	97	136
	미결제	3,062	5,045	11,361	16,150	18,662	768	462	382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395,000	238,562	164,515	330	1,199	175	2,726	361
	매도	399,218	233,425	165,046	330	1,212	435	2,672	525
	비중	49.5%	29.4%	20.5%	0.0%	0.2%	0.0%	0.3%	0.1%
순매수 누적	전일	-4,218	5,137	-531	0	-13	-260	54	-164
	누적	-10,061	10,537	2,049	0	-280	-721	-1,346	-177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385,410	202,668	64,300	330	1,827	30	96	3,940
	매도	389,004	202,524	61,513	330	1,825	152	140	3,113
	비중	58.8%	30.8%	9.6%	0.1%	0.3%	0.0%	0.0%	0.5%
순매수 누적	전일	-3,594	144	2,787	0	2	-122	-44	827
	누적	-5,845	-2,261	10,183	0	-14	-886	-2	-1,175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이한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CALL옵션		주가지수 PUT옵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차익거래 잔고 (백만원)	최근월물	5,029,445	9,879,680	9,965,900	5,030,114	-	-	-	-
	기타	-	-	-	-	-	-	-	-
	합계	5,029,445	9,879,680	9,965,900	5,030,114	0	0	0	0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수량	비율(%)	금액	비율(%)	수량	비율(%)	금액	비율(%)
프로그램 매매 동향 (백만원)	차익	381	0.12	12,577	0.34	932	0.29	33,740	0.92
	비차익	17,709	5.47	726,212	19.81	19,293	5.96	746,767	20.37
	합계	18,091	5.58	738,790	20.16	20,226	6.24	780,508	21.29
베이스시스수준		1.925	1.825	1.725	1.625	1.525	1.425	1.325	1.225
차익성 순매수		9796	3017	2324	2613	542	-63	0	0

주 : 월요일을 제외한 차익거래 잔고는 1일 지연된 데이터임.

유가증권시장			03/19 (화)	03/18 (월)	03/15 (금)	03/14 (목)	03/13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1,978.56	1,968.18	1,986.50	2,002.13	1,999.73	
	이동평균	5일	1,987.02	1,989.98	1,997.01	2,000.91	2,001.37	
		20일	2,003.87	2,004.03	2,004.68	2,004.34	2,003.04	
		60일	1,987.09	1,987.17	1,987.62	1,987.89	1,987.44	
	이격도	20일	98.74	98.21	99.09	99.89	99.83	
		60일	99.57	99.04	99.94	100.72	100.62	
	거래량		326,790	304,266	307,400	330,920	353,043	
	거래대금		37,195.0	39,625.2	52,893.9	41,640.5	34,968.7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0.92	0.85	0.86	0.93	0.99
		거래대금 회전율		0.32	0.35	0.46	0.36	0.30
심리지표		50	50	50	60	60		
ADR		100.91	104.65	103.91	104.00	107.81		
이동평균		20일	103.31	102.72	102.33	101.76	100.71	
		VR	104.58	107.02	129.34	159.70	169.64	
코스닥시장			03/19 (화)	03/18 (월)	03/15 (금)	03/14 (목)	03/13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550.01	541.09	554.81	553.58	549.73	
	이동평균	5일	549.84	548.62	548.49	546.15	543.69	
		20일	538.48	536.91	535.58	533.47	531.19	
		60일	515.39	514.31	513.49	512.41	511.27	
	이격도	20일	102.14	100.78	103.59	103.77	103.49	
		60일	106.72	105.21	108.05	108.03	107.52	
	거래량		493,308	508,038	569,681	596,481	541,570	
	거래대금		19,650.6	23,168.6	26,538.7	25,526.0	26,250.2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2.41	2.42	2.71	2.84	2.57
		거래대금 회전율		1.61	1.92	2.15	2.07	2.14
심리지표		70	70	80	80	80		
ADR		102.28	111.40	112.62	113.90	114.85		
이동평균		20일	111.43	110.59	109.82	108.71	107.31	
		VR	254.97	254.49	343.26	338.64	330.72	
자금지표			03/19 (화)	03/18 (월)	03/15 (금)	03/14 (목)	03/13 (수)	
국고채 수익률(3년)			2.60	2.59	2.61	2.62	2.61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AA-			2.93	2.93	2.95	2.96	2.96	
원/달러 환율			1,111.60	1,114.60	1,110.30	1,109.00	1,097.40	
CALL금리			2.74	2.73	2.74	2.74	2.74	
주식형(국내)			-	664,301	665,939	667,724	667,793	
주식형(해외)			-	249,439	250,018	250,868	250,699	
채권형			-	495,228	491,727	491,127	491,244	
고객예탁금			-	182,502	185,353	186,262	179,876	
고객예탁금 회전율			-	34.41	42.85	36.06	34.03	
순수예탁금 증감			-	-1,381	-973	6,913	-5,389	
미수금			-	1,090	1,098	1,259	1,206	
신용잔고			-	43,200	42,517	42,215	41,994	

단위: P, %, 천주, 억원 / 주: 고객 예탁금 회전을 = (거래대금/고객예탁금) x 100